

朝鮮 後期 佛卓 연구

허 상 호*

- I. 머리말
- II. 佛卓의 概念과 展開
- III. 朝鮮 後期 佛卓의 形式分類
- IV. 朝鮮 後期 佛卓의 空間·莊嚴의 特徵
- V. 맺음말

I. 머리말

佛卓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봉안하는 기능뿐 아니라 불전을 장엄하며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중요한 佛殿莊嚴具이다. 불탁이란 통례적으로 불려왔던 '須彌壇'을 지칭하는 것이다. 불상을 모시는 받침을 수미단이라 부르는 것은 석가모니가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곳이 수미산 정상이고, 그 모습 역시 수미산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불탁은 고대 불전 내부의 壇에서 佛座에 이르기까지 불상을 받치는 臺로써 알려져 왔으나, 조선 전기를 거치며 새로운 형태의 탁자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조선 후기 불탁은 禮佛

* 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과 儀禮를 위한 기능적인 '卓子'로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구조와 장엄 양상을 보여준다.

고대에는 佛像奉安部로서 1차적 기능을 하였지만, 17세기 전란 이후 불교대중화에 따른 불교의식의 확대와 의례장소의 공간이동으로, 예불공간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불전 내 불탁의 위치와 장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불탁은 불교의식의 발달과 營建 주체자의 변화, 佛身の 재료 변화와 함께 '佛座'라는 초기의 단순기능에서 供養과 儀式·莊嚴을 집행하는 '陳設壇'이라는 기능적 구조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戰亂 이후 천도를 위한 齋 儀式의 유행과, 儒敎의 孝思想에 기반을 둔 祖上崇拜, 그리고 基層民의 低邊에 내재한 民間信仰까지 수용하였던 불교대중화의 필연적 결과였다.

본 논문에서는 現傳하는 불탁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木造卓子로서 공예분야에 속하면서도 회화적인 면이 강하고 건축공간 내에서 차지하는 장식적·구조적 비중이 큰 불전장엄구로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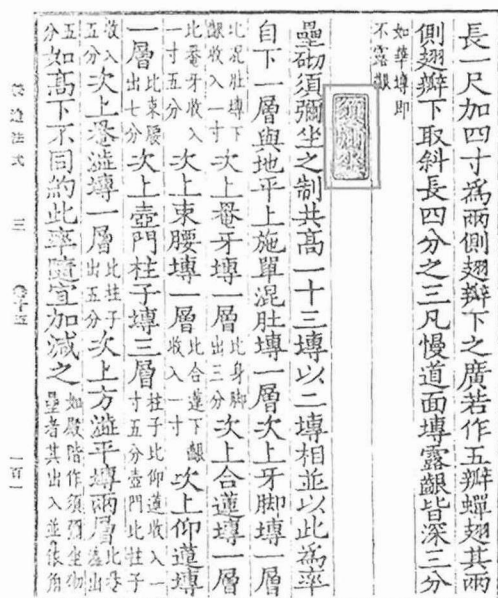
이에 앞서 조선 후기 불탁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불탁이 자리잡게 되는 불전 공간에 주목하여 불탁의 구조와 형식을 분류하고, 나아가 제작시기가 확실한 17세기 불탁을 중심으로 불탁의 공간과 장엄적 특징, 그리고 문양의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¹ 조선시대 佛卓 연구는 현전하는 작품들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라는 시대적 한계와 문헌자료·자료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축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거나 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불탁이 목공예의 한 부류로 불전 내 불상과 탕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관심 밖에 있었으며, 그 양식을 분류하는 美術史的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李康根,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李武熙, 『朝鮮後期 佛殿의 特性과 그 變化에 대한 研究』(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尹禧相, 『朝鮮後期 寺刹本堂의 形式特性에 관한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羅采華, 『韓國傳統建築의 象徵性에 관한 研究』(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肥塚陵, 『佛教美術における 莊嚴』, 『研究發表と座談會』, 『佛教美術研究上野記念財團 第十五冊』(京都: 同朋社, 1987); 張憲德, 『中韓寺刹殿堂木結構比較研究(10世紀-16世紀爲主)』(清華大學建築學院工學博士學位論文, 1999); 天沼俊一, 『古代建築研究の葉一須彌壇及臺座』, 『史林』 16卷 3·4號(1931); 關根俊一, 『佛·菩薩と堂内の莊嚴』, 『日本の美術』 281號(支文堂, 1989).

II. 佛卓의 概念과 展開

1. 佛卓의 概念

佛卓은 주로 須彌壇·須彌座·佛壇·上壇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수미산을 형상화한 상징적 용어인 '須彌壇'이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수미단은 나무나 금속 등으로 수미산을 형상화한 단을 만들고 그 단을 수미산으로 간주하여 신성한 장소로 구획한 구조물을 지칭한다.



도 1 李誠, 『營造法式』, 「博作制度」, 10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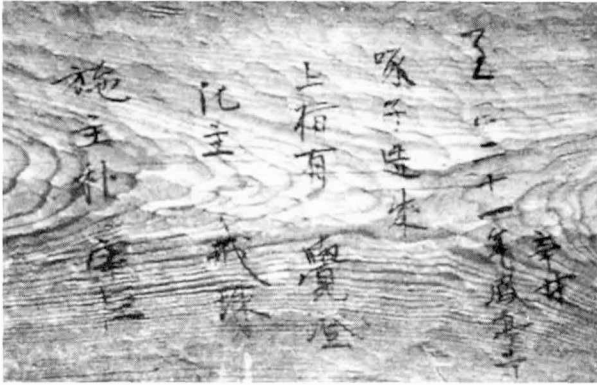
수미단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불교가 유입된 육조 이후 건축물의 基壇形式에 須彌座를 도용하기 시작하였는데, 1097년에 발간된 宋代의 『營造法式』에서는 '수미좌를 쌓아 올리는 규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도1.2

또 일본에서는 1235년 찬술된 「聖德太子傳私記」의 上宮王院條에 石壇이 三重으로 있고, 그 가장 윗부분을 須彌壇이라고 적고 있으며,3 같은 책의 法隆寺學問條에도 '須彌壇'이란 용어를 볼 수 있다.4 또한 法隆寺金堂條에는 “동쪽문을 향해서 廚子가 있는데, 이것이 推古天皇의 주자이다. 須彌座로 허리 부분이 가는 형태를

2 “壘砌須彌坐之制共高一十三博次二博相並比爲率白下一層與地平上施單混肚博一層次上牙脚博一層次上合連博一層次上東腰博一層次上仰蓮博一層次上壺門柱子博三層次上壺蓋博一層次上方蓋乎博兩層如高下不同約此率隨宜加減之.” 李誠, 『營造法式』 3卷第15, 「博作制度」(臺灣: 臺灣商務印書館, 發行年未詳).

3 “外石壇上有高監 正面有銅金鼓 四面扉在腰 石壇八方之一方廣 柱八角其一方廣 扉長 三重壇 中壇長 須彌壇長.” 顯眞 撰, 「聖德太子傳私記」 上卷 上宮王院條, 『大日本佛教全書』(東京: 有精堂, 1912).

4 “次西間須彌壇阿彌陀三尊者 間入皇女 聖德太子高橋妃之御本體故 尤根本尊像也.” 顯眞 撰, 앞의 책, 次法隆寺學問條.



도 2 安東 鳳停寺 大雄殿 佛卓 墨書, 1361년



도 2-1 大邱 桐華寺 大雄殿 佛卓 墨書, 17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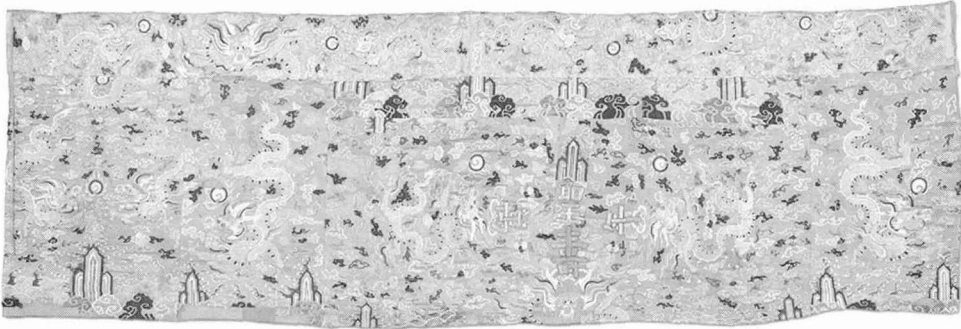
띠고 있다.”라 하였다.⁵ 특히 이 기록은 수미좌의 형상이 허리 부분이 가는 上廣下狹의 구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상을 봉안하는 기능을 하는, 佛壇 즉 須彌壇이라고 하는 유구나 문헌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반면에 鳳停寺·長谷寺·大悲寺·孤雲寺 등 조선 후기 유물에는 목서로 ‘卓子’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으며, 畫記나 寺誌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명문이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는 1361년 봉정사 대웅전으로, 이후 조선 후기 불타에서 ‘卓子’라는 목서명이 등장하며, 1858년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그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도2, 2-1, 6}.

또 이와 관련하여 仙巖寺·禪雲寺·楞伽寺를 비롯한 通度寺·美黃寺에 탁자의 장엄을

⁵ “……次向東戶有廚子 推古天皇 御廚子也 (蓋須彌座)其形腰細也……”, 顯眞 撰, 위의 책, 金堂條.

⁶ “至正二十一年歲次辛丑”, 「鳳停寺大雄殿佛卓墨書」(1361); “……佛像卓子三輩十王正門冥府殿蓋瓦碑兼大功德主明公……”, 「完州松廣寺開創碑」(1634); “康熙二拾四年乙丑 六月日修狀卓子 六月日畢力也 卓子緣秩”, “卓子化主祖欽 三殿牌佛牌跏趺 合椅牌助勸通訓比丘雙訥 造作畫員 了元比丘 儀仁比丘”, 「大悲寺大雄殿佛卓墨書」(1685); “康熙三十四五月日卓子盤子改造”, 「孤雲寺極樂殿佛卓墨書」(1695); “雍正五年丁未 六月初六日卓子造作也”, 「桐華寺大雄殿佛卓墨書」(1727); “其法堂下鋪甃用石臺安石佛二座又有金佛三座安卓子”, 「七甲山長谷寺金堂重修記」(1777); “卓子粧飾緣起……”, 「通度寺大雄殿丁蝶點刻記」(1858).



도 3 順天 仙巖寺 龍文卓衣, 16세기 말, 115×365.5cm, 仙巖寺聖寶博物館 소장

보호하는 ‘卓衣’라는 유물이 전하고 있는 점도 흥미로운데,⁷ 이 역시 조선 후기 불탁이 수미단이 아니고 ‘卓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도3, 8}

또 탁자의 문헌 및 사전적 의미가 물건을 올려놓는 기구, 또는 부처 앞에 불박이로 있어 제물·다기 등을 차려놓는 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탁자가 조선 후기 불상봉안의 기능과 함께 공양을 위한 역할까지 담당하는 실용적인 구조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⁹

현재 학계에서는 불상을 모시는 받침단, 소위 수미단이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순 없다. 다만 1931년 간행된 아마노마(天沼俊一)의 『日本古建築研究』에서 ‘須彌壇’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1932년 간행된 『朝鮮古蹟圖譜』의 佛寺建築編에 ‘佛壇’이란 용

7 卓衣는 조선시대 佛卓의 莊嚴·儀式用 修粧材로 高麗佛畫·寫經·甘露幀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佛卓과 寶卓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문양과 장엄수법은 佛菩薩의 天衣나 임금의 곤룡포와 흡사한 구조로 雲龍文·蓮華唐草文·牡丹·十長生文 등으로 장식된다. 재료는 佛畫 畫記와 事蹟碑의 施主秩 기록을 통해 錦卓衣임을 알 수 있다. 卓衣는 현재 通度寺·仙巖寺 박물관에 소장된 雲龍文 卓衣 4점이 존재하며, 朝鮮中期以後 甘露幀의 유행과 함께 儀式壇의 莊嚴으로 영가천도와 齋儀式의 修粧材로 일제시대까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8 「崇德七年壬午五月日掛佛幀……使五路幀錦青文緣卓衣」, 『美黃寺掛佛幀墨書』(1642): “……卓衣有上壇卓衣中壇卓衣揮帳有二……”, 『禪雲寺法堂常用器皿什物傳掌記』(1686): “……錦卓衣化主信熙……”, 『楞伽寺事蹟碑』(1690): “大雄殿卓衣施主壬寅尙宮壬寅生氏 極樂華現前安樂當往蓮界……”, 『通度寺大雄殿卓衣』(1890): “神貞王后 誕辰國齋 賜下 觀音殿卓衣 辛卯臘月 初六日”, 『通度寺觀音殿卓衣』(1891): “卓衣 濯浴 沈帳 等 對靈 外諸古品”, 『通度寺大雄殿卓衣櫃』(19세기).

9 “……卽跪於佛前日 業已定矣 不可誣矣 遂隱於几下 以候其約 俄而有一美姬 年可十五六 鬢淡飾 儀容嫋妙 如仙姝天妃 望之巖然 手携油瓶 添燈插香 三拜而跪 噫而歎曰 人生薄命 乃如此邪 遂出懷中狀詞 獻於卓前……”, 金時習, 『金鰲新話』, 『萬福寺携蒲記』(1434-1493): “……頭輪山大興寺清神菴地藏幀造成仍以奉安于桌上……”, 『大興寺清神菴地藏幀』畫記, 1937년, 綿本彩色, 116×136cm, 大興寺聖寶博物館 소장.

어가 사용되고 있어, 일제시대 수미단 또는 불단이란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수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래까지 佛家에서는 여전히 탁자를 둘러싸는 장막을 '卓衣'라 부르며, 1937년 상량된 曹溪寺 大雄殿의 건축보고서에도 壇家·卓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卓子'라는 용어가 사찰 또는 건물을 짓는 편수들에 의해 근대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상을 봉안하고 각종의 공양구를 올려놓는 예배단은 명문은 물론 용례를 통하여 볼 때 불단 또는 수미단이라기 보다는 '卓子'라고 불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탁자와 그 의미와 쓰임새를 구별하기 위해 불가의 탁자라는 뜻에서 본 논문에서 '佛卓'이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佛卓의 展開

불상을 모시는 예배단 즉 조선 후기 불탁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불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수미산의 도상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수미산과 관련된 『大日經疏』, 『長阿含經』, 『大智度論』 등 경전에서는 수미산을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上廣下狹'의 모습이라 하여 구리로 만든 촛대에 비유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일본 문헌에서 수미좌의 구조를 허리 부분이 가는 상광하협의 모습이라 하였다^{도4}.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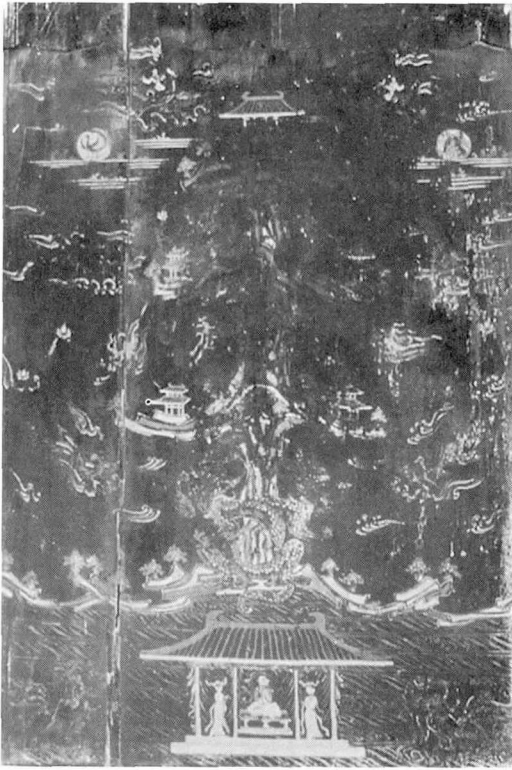
이는 불탁이 불교 우주관의 중심인 수미산과 관련된 관념적인 용어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불상봉안부가 불전의 중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

현재 이런 상광하협 수미산 도상은 불상의 대좌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대좌 중 수미좌로 지칭되는 가장 빠른 예는 중국의 劉宋 元嘉 14년 金銅如來坐像의 대좌로, 한국에서는 장천 1호분 벽화의 여래좌상을 비롯하여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고려시대 장곡사나 고달사지의 대좌에서도 볼 수 있다^{도5}.

¹⁰ 「朝鮮佛敎總本山大雄殿建築報告」, 『佛敎』 新第17輯(1938, 11).

¹¹ “爾時佛告富婁那比丘 是世界地 形相團圓 如銅燭盤 如陶家輪 是世界地 亦復如是 猶如燭盤邊緣隆起 其鐵圍山 亦復如是 譬如燭盤中央隆起 其世界中有須彌山王 亦復如是……”, 『佛說立世阿毘曇論卷第二』 數量品第七, 『大正新修大藏經』 32卷, p.181a; 『望月佛敎大事典』 3, pp.2513上~2515中 참고.

¹² 수미단과 수미산을 언급한 논문으로는 關根俊一, 「佛·菩薩と堂内の莊嚴」, 『日本の美術』 281號(支文堂, 1989), p.10과 定方晟, 『須彌山と極樂』(日本: 講談社, 1964), pp.16-17이 있으며, '上廣下狹'과 宇宙樹 圖像의 대표적 인 문헌으로 小南一郎, 「壺刑の宇宙」, 『東方學報』 61(1989)가 있다.



도 5 長川 1號墳 如來坐像 禮拜圖, 4세기 말

도 4 日本 玉蟲廚子 須彌座의 須彌山圖,
7세기, 35.5×46.2cm,
日本 法隆寺 大寶藏殿 소장



도 6 金銅三尊佛龕, 高麗 12세기,
높이 18cm, 澗松美術館 소장



도 7 <道林寺 掛佛>, 1683년,
麻本彩色, 700×680cm, 道林寺 소장

또 고려시대 불전의 모습을 압축한 국보 제73호 금동삼존불감에서는 상광하협의 도상을 지닌 수미좌의 모습이 등장하며, 분리된 감실의 기단부 역시 상광하협의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동시대인 봉정사 극락전의 보전형 불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도6}.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상광하협이 대좌에 유행한 것과 수덕사 대웅전 대좌형 불탁처럼 육각수미좌로 족대를 가진 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고려불화에는 상광하협을 모본으로 육각의 대좌 아래 供養花를 올리고 中臺의 면을 나눈 장방형의 불탁이 나타나고 있어, 고려시대에 이미 불탁의 표면을 나누는 장엄수법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처럼 평면이 장방형으로 확대된 불탁은 궁중 내원당을 묘사한 宮中崇佛圖에서 장방형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조선 후기에는 장방형의 평면에 족대를 가진 탁자가 유행하게 된다^{도7}. 조선 후기 불화에서 보이는 불탁은 장방형의 평면에 족대를 가진 것과 중대가 격간으로 분절된 것으로, 격간 내부에는 眼象, 또는 唐草文, 牡丹文 같은 다양한 植物文을 시문하고 있어, 17세기 일반형 불탁이 조선 후기 불화에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朝鮮 後期 佛卓의 形式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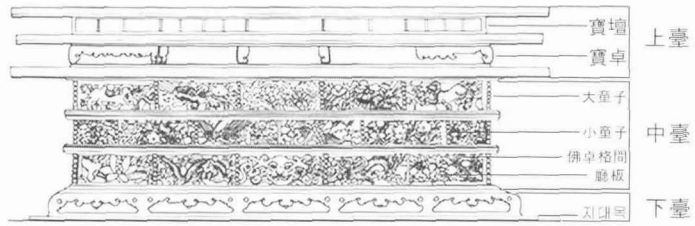
조선시대 불탁은 수미산의 관념적인 도상인 上廣下狹의 구조 속에 상부 가리개인 寶卓과 寶壇·寶欄 등의 보조물과 바닥·후불벽·고주 등 주불봉안의 건축 설비로 이루어진다.

불탁의 구조는 上臺·中臺·下臺의 3단을 기본으로 天板이 추가되는 모습이다^{삼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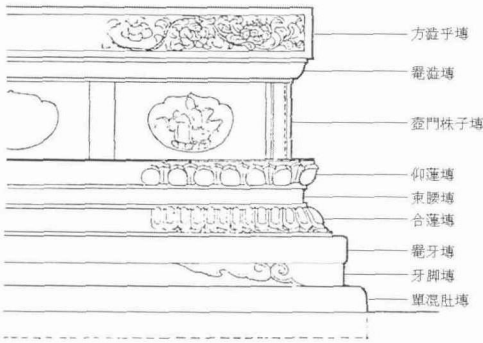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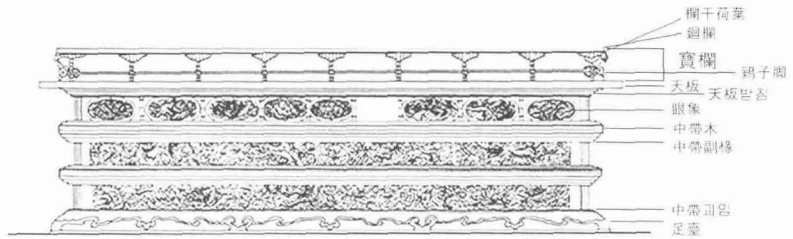
上臺部는 천판과 맞닿은 상부의 불탁시설로 불상봉안을 위한 근접시설인 보단·보탁·홍살 등의 가리개와 불탁의 건축적 요소인 후불벽·수장관이 여기에 속하며, 불탁의 기능적 역할인 봉안부를 보호하고 공양·의식하는 기능이 이루어진다.¹³

中臺部는 천판과 하대부 사이에 위치한 불탁의 몸체로 문양이나 탁의와 같은 장엄물이 형성되며, 불탁의 형식분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구조는 허리가 가늘고,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수미산형으로 中臺木을 중심으로 2단 또는 3·4단으로 나누어지며, 廳板은 大童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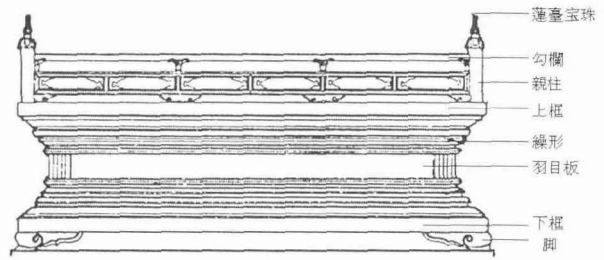
¹³ 寶壇·寶卓·寶欄은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가리개와 현공구를 올릴 수 있는 공양대의 기능을 가진다. 보단은 1·2단의 층급형 구조로, 지역에 따라 천판과 일체형을 띠거나 분리된 모습이다. 寶卓은 불탁 전면에 있던 補卓이 불탁 상부로 이동한 것으로, 중대의 청판문양을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香爐床으로 별칭되며, 足臺를 가지고 있다. 寶欄은 보단·보탁 없이 불탁의 갓둘레를 둘러막는 欄干으로 홍살과 함께 가리개로 사용된다.



삼도 1 일반형 佛卓의 구조와 명칭



삼도 2 중국 宋式 須彌座



삼도 3 일본 禪宗樣 須彌壇, 正福寺 地藏堂, 鎌倉時代

와 小童子를 중심으로 格間이 분절된 모습이다. 또 몸체의 표면인 청판에는 문양이 투각되고 채색되어 조선 후기 불타의 독창성과 양식적 특징이 나타난다.

下臺部는 조선시대 공양탁자로서 불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足臺와 통자형의 臺로 나누어지며, 축대 내부의 문양을 통해 장엄불타의 지역적 성향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3단으로 구분되는 조선 후기 불타는 단을 상징하듯 불전 내에 두고 불상을 한 단 높게 안치하는 장엄된 구조물의 기능을 가진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선 후기 불타는 중국 宋과 淸代의 수미좌처럼 身部가 불상의 대좌나 건축물의 臺基로 사용된 예와 일본의 禪宗樣 須彌壇처럼 불전 건조물의 일부로 內陣

중앙에 대좌를 안치한 壇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유형을 조형으로 하고 있다^{삼도2.3}.¹⁴

불탁의 형식분류는 3단의 외형적 구조에 따라 古式形(I形式), 一般形(II形式), 特殊形(III形式)으로 분류되며, 天板의 유무에 따라 탁자 이전의 불좌로서의 古式形에서 천판의 등장과 확대로 나타난 一般形·特殊形 불탁이 17세기 이후 정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표 1 13-17세기 불탁의 형식분류

| 時期 | 形式分類 | 13-17世紀 佛卓 | | | |
|------------------------------|-----------|------------|--|--|--|
| 고려 말기 | 고식형(I形式) | 대좌형(I-1) | 장곡사 상대웅전, 수덕사 대웅전 | | |
| | | 보전형(I-2) | 봉정사 극락전 | | |
| 조선 전기 조선 후기 (17C) | 일반형(II形式) | 가리개형(II-5) | 부석사 무량수전, 개심사 대웅전, 보경사 적광전, 고산사 대웅전 | | |
| | | 변형(II-4) |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개목사 원통전, 무위사 극락전, 각연사 대웅전 | | |
| | | | (II-2-1) | 무위사 극락전, 각연사 대웅전, 다보사 대웅전, 운흥사 대웅전 | |
| | | 2단형(II-2) | (II-2-2) | 율곡사 대웅전, 송광사 대웅전, 기림사 대적광전, 내소사 대웅보전, 안심사 대웅전 | |
| | | 3단형(II-1) | (II-1-1) | 봉정사 대웅전, 파계사 원통전, 전등사 대웅보전, 청곡사 대웅전, 정혜사 대웅전, 관룡사 대웅전, 문수사 극락보전, 불갑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백홍암 극락전, 경흥사 대웅전, 범주사 원통보전, 직지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미황사 대웅전, 용천사 대웅전, 선석사 대웅전, 대비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보전, 화엄사 원통전 | |
| | | | | (II-1-2) | 수덕사대웅전, 화암사 극락전, 선운사 대웅보전, 화엄사 대웅전, 개암사 대웅보전, 쌍계사 대웅전, 위봉사 보광명전, 참담암 대웅전, 고운사 극락전, 동화사 대웅전 |
| | | | | 4단형(II-3) | (II-3-1) 남장사 |
| | | (II-3) | (II-3-2) 개목사 원통전, 무량사 극락전 | | |
| | | 특수형(III形式) | 특수형(III-1) | 환성사 대웅전, 통도사 대웅전 | |

※ 불탁의 배열은 불전의 건립시기와 불전의 목서명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열하였으며, 두 가지 형식이 공존하는 변형 불탁에는 중복된 불전을 다시 배열하였다.

¹⁴ 조선 후기 불탁의 원형은 현재 유물과 문헌의 부족으로 그 예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 수미단을 통해 그 원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수미단은 불전 내부 건조물의 일부로 불상을 모시는 대형의 것과, 수미단 그 자체가 불상의 대좌로 사용된 소형의 것 두 가지가 있다. 그 흐름은 초기 石造로 축조된 건축물의 단이나 석조 대좌의 모습을 띤 壇上積基壇式 須彌壇을 祖形으로 7세기 宣字形臺座라는 '上廣下狹'의 수미좌로 변화하였다. 이후 12세기 헤이안(平安)시대 불전 내 바닥을 판자로 개조하는 재료 변천을 통해 상광하협의 도상을 가진 목

본 논문에서는 17세기 불전과 불탁을 대상으로 절대연도가 확실한 불탁과 17세기 佛殿裝飾化 경향에 따른 장엄불탁을 중심으로 형식을 분류하였으며, 중대의 장엄구조에 따라 그 형식을 세분화하였다.

1. 古式形

古式形은 고려 말·조선 전기 불전에 남아 있는 불탁으로, 불상봉안부로서 1차적 기능을 가진 臺座形과 寶殿形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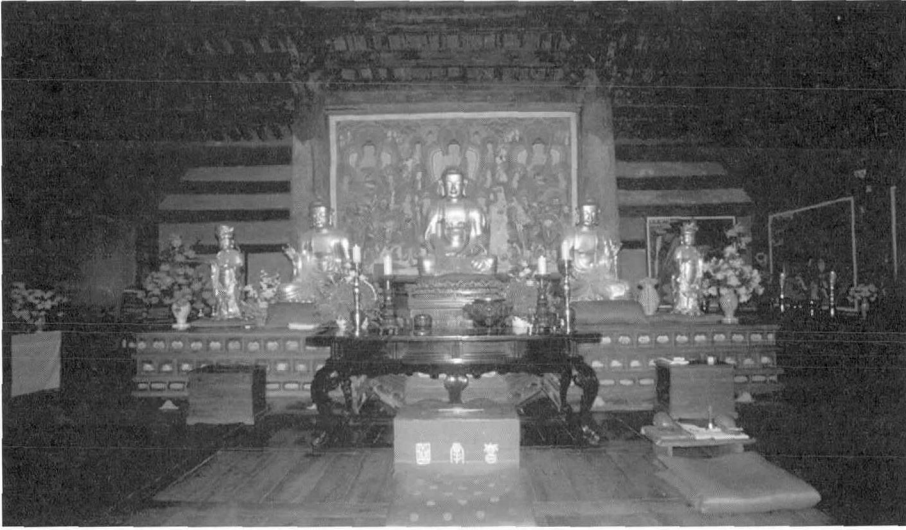
臺座形은 본존상의 재료 변화에 따른 목조와 석조의 修德寺·長谷寺 佛卓이 있다. 이는 대좌의 발전단계인 수미좌의 轉移과정에서 나타난 기능 위주의 구조물로 불탁 자체에는 예불과 공양을 위한 다른 부가시설이 없으며, 불탁 전면에는 足臺가 있는 補卓이 供養臺로서의 기능을 한다⁸.

1308년의 절대연도를 가진 修德寺 大雄殿 불탁은 14세기 중국의 宋式 須彌座와 일본의 宣字形 臺座와 같은 형식으로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육각 수미좌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구조는 上·下壇 2단 구조에 寶欄과 三葉華形 홍살을 장엄한 모습으로 조선 후기 일반형 불탁과는 달리 天板이 없는 수미좌의 모습이다⁹. 이는 석조대좌인 長谷寺 須彌座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일반형 불탁의 성립 이전의 불전구조와 불탁의 용도를 보여준다.¹⁵

장곡사 수미좌는 「七甲山長谷寺金堂重修記」懸板에 ‘石臺安石佛二座又有金佛三座安卓子’라 하여 石臺가 현재의 수미좌임을 보여주며, 8세기 유행한 蓮花長方形臺座의 모습을 가

조 수미단이 정착되었으며, 13-14세기 송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선종 관계자들에 의해 도입된 중국 송식 수미좌가 일본 전통의 和樣須彌壇에 영향을 끼치며, 재래 양식과 다른 腹凹式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禪宗樣須彌壇이 유행하게 된다. 이런 일본 수미단의 형식 변천은 조선 후기 불탁의 원형인 臺座形·寶殿形 불탁의 구조변화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불탁의 원형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일본 수미단의 기원과 전개는 『佛具大事典』(鎌倉新書, 1982), pp.78-84, pp.396-413; 『望月佛教大事典』 3, pp.2515中-2516中: 앞의 책 5, pp.4471上-4471下 참고.

¹⁵ 한국 불탁의 고식형인 대좌형·보전형 불탁은 불탁의 시원형식으로 일본 수미단의 초기 형식인 대좌의 기능을 가진 수미좌의 모습이다. 이는 송식 수미좌가 유행한 13세기 전반까지 수미좌와 공양대가 분리된 모습으로 공양대인 補卓이 불전 내에 함께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장곡사에는 1653년 명문을 가진 탁자 2구가 있는데, 조선 후기 불상의 공양과 의식집행을 위해 공양대로서 후보된 것이다. “順治十年癸巳七月造成又九月丹青畢”, “順治十年 戴椽修莊大施主 大化主兼一國比丘 修莊大木秩元 寬惠比丘 德靈比丘 供養主 靈祐比丘 已□保体 別座儀宗比丘 六月拾一日至始”, 『靑陽長谷寺上大雄殿補卓造成記』(1653).



도 8 瑞山 修德寺 大雄殿, 13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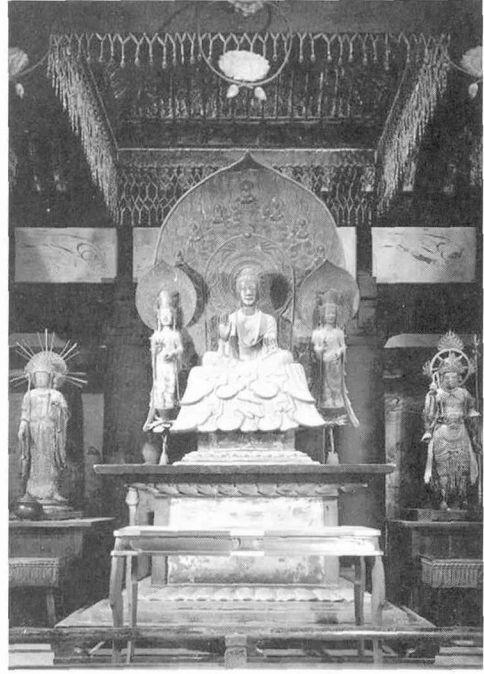
도 9 修德寺 大雄殿 六角 須彌座

지고 있다^{도10}. 특히 지대석 네 모퉁이의 圓孔과 堂主는 감은사 사리기 같은 天蓋가 있었던 보전형의 구조로, 수미좌의 모습은 8세기 일본 아스카(飛鳥)시대 法隆寺 藥師如來坐像台座나 法隆寺 大寶藏殿 玉蟲廚子 같은 宣字形 台座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도11}.¹⁶

寶殿形은 천개가 불탁의 상부에 떠 있는 懸垂天蓋 성립 이전의 감실 형태로, 대좌형 불탁과 함께 고려시대 불탁의 또 다른 모습이다. 특히 봉정사 극락전 불탁은 외형상 건축기단식 구조를 모방한 중국의 송식 수미좌와 일본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선종양 수미단과 흡사



도 10 靑陽 長谷寺 上大雄殿 石造 須彌座, 10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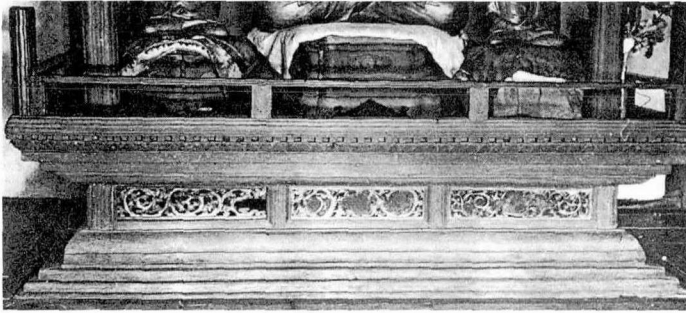
도 11 日本 法隆寺 大寶藏殿, 623년

한 구조로, 13세기 일본에서 조성된 建長寺와 円覺寺 本堂의 선종양 수미단과 유사한 모습이다^{12, 12-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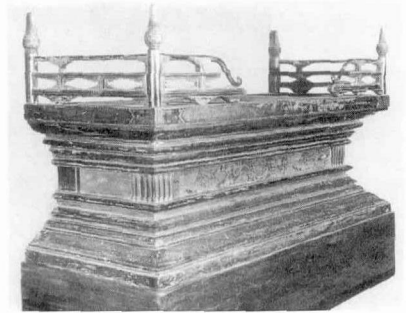
봉정사 불탁은 상·중·하대의 3단으로, 보란과 천개를 가진 龕室構造이다. 특징은 대

¹⁶ 長谷寺 上大雄殿의 長方形 臺座가 寶殿形 佛卓의 原形이라는 추정은 지대석 四隅의 圓孔과 活柱·唐柱의 흔적, 그리고 上部 床石 上面의 목조광배의 홈 등 대좌의 구성에서 그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鸞棲寺 普光殿의 石造 毘盧遮那佛坐의 「身頭牌兼盤龍記文」(1730)에 “維我鸞棲者乃新羅義湘法師之建刹自古以來法殿佛像獨存故畫匠世均上人慷慨發心雍正己酉年中備成三層疏臺殿牌明年亦成盤龍及身牌身頭盤龍之化主則此寺有功人居士戒三者引勸兼發自財鐵物布施成之此事嗚呼兩人勛勞之功萬古不退□時雍正八年庚戌流火既望巨昭門人玉點謹書安東府北面文殊山鸞棲寺留…… 畫員通政大夫比丘世均……”를 통해 그 예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은 기단부 네 귀의 원공에서 활주가 올라가 보전형 단집을 구성하고, 연화대와 위로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처럼 목조 신두패가 올려진 모습으로 감은사 사리기 외함, 또는 봉정사 극락전과 같은 감실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¹⁷ 홍병화, 「봉정사 극락전 단집의 편년에 대하여」, 『聖寶』 5호(대한불교조계종성보보존위원회, 2003), pp.98-102 에는 불단을 宋代 台基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편년을 1199년 불상이 조성되던 시기, 또는 1250년 이층 전각이 조성되던 시기에 단집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12 安東 鳳停寺 極樂殿 佛卓, 13세기



도 12-1 日本 建長寺 須彌壇,
鎌倉時代, 너비 225cm, 높이 89cm



도 13 長谷寺 上大雄殿 補卓, 1653년

좌형 불탁과 같이 천판이 확대되지 않은 채, 상대와 하대를 넓게, 중대를 좁게 만든 상광하협 구조로, 천판 상부에는 보전을 축소한 듯 계자각 난간을 두르고 천개를 올렸다. 이후 보전형 불탁은 현수천개의 성립 이전 간략화된 감실 형태를 유지하며, 화암사·전등사·화엄사 등 17세기 후반의 불탁까지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이처럼 고식형 불탁은 불상봉안을 위한 불좌와 공양대가 분리된 모습으로, 일본 범룡사 금당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으며, 봉정사 대웅전 불탁의 발생이 조선 후기 불탁의 시원형식으로 송식 수미좌를 모방한 선종양수미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불좌 전면의 補卓은 불상을 공양하고 예경하기 위한 공양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불전인 鳳停寺·修德寺·長谷寺·桐華寺 金堂에서 그 유물을 찾을 수 있다^{도13}. 이는 불탁이 불좌로서의 의미가 컸으며, 예불과 공양은 보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보탁은 공양대로서 족대의 발생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조선 후기 불전 내 의식을 위한

진설단으로서 천판의 등장과 보단·보탁이 정착되는 일반형 불탁의 발생을 가져온다.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앞서 살펴본 고식형 불탁이 사라지고, 일반형 불탁이 정형화 되는데, 상대에 천판이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보탁의 기능을 흡수하는 기능적인 탁자로서 다 변한다. 시기별로 왜란 이전 천판의 발생으로 생겨난 불탁을 가리개형·변형이라 하고, 왜란 이후 천판의 확대에 나타나는 불탁을 중대의 층급에 따라 일반형 불탁 2·3·4단이라 한다.

2. 一般形

고식형 이후 일반형이 등장하기 이전 형식인 가리개형과 변형은 임진왜란 이전 불전에 서 볼 수 있는 과도기적 불탁으로 고식형에 나타나는 補卓이 사라지고, 天板이 등장한다.

가리개형은 불상의 姿勢와 形態에 따라 불탁이 병풍구조를 가진 모습으로, 고려 이후 조선 초기 건물인 浮石寺·開心寺·寶鏡寺·高山寺에서 볼 수 있다.

부석사 불탁은 14세기와 17세기 불탁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塑造臺座를 감싼 2구의 불탁이 남아 있다^{14, 14-1}. 현재 가리개형 불탁은 대좌를 감싼 14세기 목조불탁을 모방한 것으로, 천판이 고주의 폭보다 넓지 않고, 천판받침에 三葉華形 홍살, 천판 받침과 중대부연의 양·복련 조식, 불탁 측면의 홍살 등 고식형 불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탁 상대에는 1618년 천개와 함께 보완된 寶壇이 첨가되어 있어, 17세기 불탁 구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¹⁸

¹⁸ 부석사 불탁 내부에는 塑造臺座를 감싼 2구의 가리개형 불탁이 있다. 佛卓의 출입문은 일반형 불탁과는 달리 천판 상부에 출입시설을 가지고, 내부는 수장고로서 불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을 보여준다. 소조대좌를 감싼 첫 번째 불탁은 2단형으로 봉정사 대웅전, 개목사 원통전과 같이 침단을 가진 특이한 모습이다. 청판은 연주형 동자목으로 격간을 분절하고 안상을 시문한 모습으로 그 구조는 현재 바깥 불탁과 일치한다. 이는 기림사 대적광전, 운흥사 대웅전, 안심사 대웅전 등 소조삼세불상을 봉안한 불탁들이 2단형 불탁을 가지고 있어 불상의 규모와 재료가 불탁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불탁의 바닥은 외부에 깔려 있는 방형 무문전과는 달리 유리전으로 바닥을 수장하였는데, 이는 원용국사탑비의 기록에 따라 무량수전 내부를 극락정도로 장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다. 이처럼 부석사 불탁에는 고려와 조선 후기 2가지 유형의 불탁이 있는데, 불탁을 중심으로 깔려 있는 유리전과 무문전의 결계는 고려시대 불상봉안과 장엄법식의 한 유형을 보여주며, 1618년 천개와 함께 보수된 보단의 정착은 불탁의 기능이 불상의 봉안처에서 의식과 공양을 위한 공양대로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탁 아래 깔려 있는 1단의 족대를 가진 보조단의 실체를 통해서도 그 기능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고려 이전 불탁의 높이가 평균 114cm에서 조선 후기 99.5cm로 줄어드는 것을 비교하면, 고려시대 불탁이 불상의 봉안부에서 공양대의 기능으로 변모하였으며, 17세기 부석사의 불탁 역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단의 보조단과 상대의 보단을 가설한 것으로 보인다.



도 14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佛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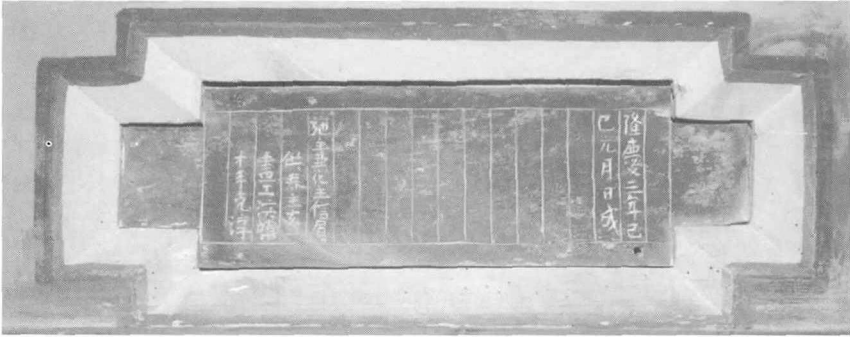
도 14-1 浮石寺 佛卓 內部 塑造臺座



도 15-1 寶鏡寺 佛卓 內部 塑造臺座



도 15 浦項 寶鏡寺 寂光殿 佛卓, 1569년



도 16 寶鏡寺 佛卓 側面 緣化秩 부분

寶鏡寺 불탁은 1569년의 절대명문을 가진 가리개형으로 현전하는 완형의 가장 오래된 불탁이다. 불탁은 내부의 八角蓮花臺座를 중심으로 右繞三面할 수 있는 중심형 구조로, 고주 없이 수장관을 후불벽으로 장엄한 후, 옥으로 만든 전돌 위에 배치되어 있다^{도15, 15-1}.

보경사 불탁의 구조는 전면에 공양대가 사라지고 천판이 형성된 모습으로, 중대는 내부에 있는 소조팔각연화대좌를 병풍처럼 감싼 채 대좌의 높이에 맞게 정형화된 2단의 중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불탁은 일반형 불탁으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고식형 불탁에서 볼 수 있는 천판과 하대의 폭 일치, 2단의 불탁 중대 속에 천판받침의 중대목화, 중첩형 족대 등 고식 요소가 남아 있으며, 격간 높이의 일치, 귀면과 용·목단 등의 화훼문의 장엄 등 일반형 불탁의 특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불탁 우측 청판 내부에 나타나는 眼象과 莊嚴文은 이미 1569년에 다양한 장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며, 조선 후기 불탁의 명문이 먹으로 쓰여 있는데 반하여, 이곳에서는 年代와 發願者를 안상 내부에 음각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명문 기입방법도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도16}.¹⁹ 또 명문 중 施主 겸 化主가 조선 중기 고승인 信眉라는 점과 불탁 조성을 위해 畫工, 木手가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탁의 제작에

¹⁹ “無盡煩惱斷 無量法門學 誓度諸有情 皆共成正覺 願生出善家 願早遇明師 願語法門 願信心堅固願戒行清淨願 淫心永斷 願活眼輕術 常行六波羅蜜 用天大報恩 國王[國]報恩世界施主恩父母受生恩 四恩三有盡忠忘永斷生 [國]入 涅槃”, “隆慶三年己巳元月日成 施主兼化主 信眉 供養主 玄一 畫工 演嘻 木手 克淳”, 「寶鏡寺佛卓 右側格間內 廳 板陰刻記」(1569).



도 17 安東 鳳停寺 大雄殿 佛卓

있어 小木들의 역할 분담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변형 불탁은 가리개형 불탁과 함께 조선 전기 불전에 남아 있는 과도기적 불탁으로, 외형상 상·중·하대의 3단 구조에 중대의 격간이 정연하지 않은 添壇 요소를 가진 불탁이다.

봉정사와 수덕사는 일반형 불탁의 초기형식으로 中臺木을 중심으로 형성된 격간의 높이가 1·2단에 비해 3단이 좁은 첨단 요소를 보이며, 15세기 이전 불탁에 등장하는 천판과 중대의 폭 일치, 천판받침의 중대목화, 천판받침과 중대피임의 양·복련의 조식 등 고식 불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첨단은 이후 개심사 대웅전·개목사 원통전·무위사 극락전 등 고려 말 조선 전기 불탁에 나타나며, 17세기 중기 이후 그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

그중 봉정사 불탁은 장방형으로 모습을 바꾼 일반형 불탁의 초기 형식으로, 1569년 연대를 가진 보경사 불탁에 앞서 중대 내부가 장엄되었음을 보여주며, 불탁이 공양대의 실용적인 구조로 변모하면서 불탁 내부에 공양과 의식을 위한 수장시설이 등장한다^{도17}. 특히 불탁 내부 수장시설의 출입구가 불탁 뒷면이 아닌 좌측면에 가설되어 있어 일반형 불탁으로 정착되기 이전 수장고 시설의 초기형태를 보여주며, 천판이 확대되기 이전 보단과 보탁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²⁰ 이 불탁은 보단 내부에 시문된 蓮花唐草文을 통해 그 연대를

²⁰ 일반형 불탁의 수장고화는 花巖寺 극락전과 鳳停寺 大雄殿을 시원으로, 浮石寺 無量壽殿은 天板 上面을 出入空間으로 구성한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鳳停寺는 정면과 우측면의 기구수법과 부재의 교란으로 1361년 불탁 조성 시 만들어진 것이 아닌 1601년 대웅전 중수 또는 18세기 중반 불상 개금 시 불탁의 수장고 기능을 위해 미닫이식의 출입구로 보완된 것이다. 이는 17세기 중반 이후 佛卓의 出入口가 불전 내부의 평면구조와 밀접

도 18 鳳停寺
大雄殿
佛卓의 寶壇



도 18-1 〈鳳停寺 大雄殿 釋迦牟尼後佛壁畫〉邊
부분, 15세기, 土壁彩色, 307×351cm



가늠할 수 있는데, 15세기로 추정되는 대웅전 석가모니후불벽화의 邊과 그 문양이 동일하여, 1361년 불타이 조성된 후 15세기 후불벽화와 함께 보수된 조선 중기 불타임을 알 수 있다(도18, 18-1).

이처럼 변형과 가리개형 불타는 일반형 불타의 선행형식으로 17세기 불전의 장식화 경향과 함께 장방형의 평면을 지닌 일반형 불타로 정착된다. 그 특징은 과거 공존하던 고식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의식과 공양을 위한 천판의 확대, 보단·보타의 정착 등 기능성 위주의 시설과 불전장엄 위주의 불타으로 변화한다.

일반형 불타의 특징은 첫째, 천판이 중·하대의 폭보다 확대된 모습으로, 중대의 격간 높이가 일치하며, 분절된 격간의 대칭구조, 보단과 보타이 상설된 모습이다. 문양은 청판과 안상의 공존 아래 석가전생의 동·식물이 문양의 주체를 이루며, 본생담의 내용과 불교적 길상문이 희석화되는 17세기 후반 불타의 장엄 성향을 보여준다.

구조는 상·중·하대를 갖춘 3단 구조를 원형으로 중대의 층단에 따라 2(II-2形式)·3(II-1形式)·4(II-3形式)단으로 분류되며, 중대의 청판구조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또 가리개로서 보단과 보타·보란이 정형화되면서 고식형에서 볼 수 있는 공양대로서의 보타이 불타의 천판 상부로 이동하는 의식 위주의 기능성 불타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일반형 불타는 17세기 초반까지 고식의 요소를 가지며, 일반형 불타로서의 정형화되기 이전에 나타난 보전형과 변형 불타의 특징들이 공존한다. 조선 후기 외부공포의 장식화 경향이 시작되는 1606년 화암사 극락전 불타는 이런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한 연관 속에 불타 위치의 移住로 인한 移住法, 불타 전면공간의 확대, 儀式의 常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조선 중기 이후 불타이 불상전유의 봉안소가 아닌 供養臺·儀式壇으로서 그 기능적 요소가 강해지면서 佛卓 左右에 자리한 出入口가 背面의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그 중앙이나 좌우측면을 향시 이용할 수 있는 수장고로 탈바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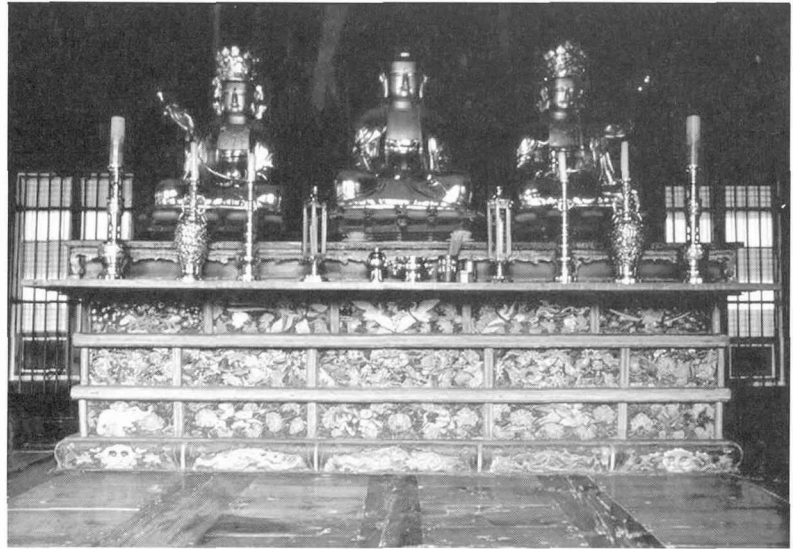
도 19 江華 傳燈寺 大雄殿 佛卓, 1621년

인 불탁으로 고식과 신앙식이 공존하며, 15세기 불탁에서 볼 수 없던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째, 불탁의 폭이 어칸의 폭보다 넓어지고, 둘째, 천판 받침의 중대목화가 사라지며, 셋째, 3단의 격간 높이가 일정하게 구획된다는 점, 넷째, 격간의 모습이 동자목을 중심으로 1·3단과 2단이 대칭인 점 등 일반형 불탁의 신앙식이 등장한다. 그러나 현수천개 이전의 당주가 천판까지 내려앉은 보전형의 모습과 측면의 홍살 등 고식 요소가 공존한다.

특히 이런 과도기적 요소는 1621년 전등사 불탁과 각연사·율곡사 등 17세기 중반 불탁에 공존하다가 1643년 백홍암 불탁 이후 사라지게 되며, 1651년 직지사 불탁을 시작으로 일반형 불탁의 신앙식이 경북지방에 정착하게 된다^{도19}.

백홍암 불탁은 1643년 이후 조성된 조선 후기 불탁으로 격간의 높이가 일치하는 전형적인 3단 구조이다^{도20}. 그 특징은 천판의 폭 확대, 1·2·3단의 격간 대칭구조, 보탁의 정착화, 불탁 배면의 수장고화 등 일반형 불탁의 특징이 정형화되며, 중대문양에 있어 조선 후기 불탁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엄문양들이 투각되고 채색된다. 특히 문양은 정면에 불교적 색채를 띤 동식물과 화조문을, 측면에 비현실적인 서수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인근의 환성사 불탁과 함께 본생담의 이야기를 도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도20-1}.



도 20 永川 銀海寺
百興庵
極樂殿 佛卓



도 20-1 百興庵 佛卓 측면

또 인근의 직지사 불탁 역시 1651년 절대명문을 가진 불탁으로 17세기 중반 이후 경북 지방 장엄탁자의 흐름을 보여준다.²¹ 특히 중대의 장엄은 3단에서 1단으로 올라갈수록 바다 → 땅 → 하늘로 상승하는 時空間을 초월한 디오라마식의 문양들을 화려하게 투각·채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후 일반형 불탁은 觀龍寺·文殊寺·定慧寺·靑谷寺 등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불전에 전국에 걸쳐 정착되며, 특히 제작연대가 확실한 1685년 大悲寺, 1688년 禪石寺, 1695년 孤雲

²¹ “順治八年辛卯四月 大雄殿 黃岳山 直指寺”, 「黃岳山直指寺大雄殿 佛卓墨書」(1651).



도 21 淸道 雲門寺 佛卓, 1688년



도 22 淸道 大悲寺 大雄殿 佛卓 足臺, 1685년



도 22-1 淸道 雲門寺 觀音殿 佛卓 足臺

寺, 1727년 桐華寺에 이르기까지 八公山 일대를 중심으로 중대를 眼象과 廳板으로 장엄하게 된다.²² 특히 이들 팔공산 일대의 불탁은 공포부재의 장식화 경향에 따른 翹頭形 살미를 가진 大邱·淸道·梁山 등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소목장의 지역적·기술적 공장계보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팔공산 일대의 大悲寺와 雲門寺·湧泉寺 불탁의 緣化秩을 통해 불탁과 불전장엄구의 제작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는 都畫員 了元, 付畫員 儀仁이 佛輦·經軌 등 불전 장엄구를 불탁과 함께 조성하였으며, 중대 문양을 모두 꽃으로 장엄하는 독창성을 보여준다^{도21}.

특히 운문사와 대비사 불탁은 중대의 문양을 비롯하여 하대와 보탁의 족대가 동일한 문양과 치목수법을 가지고 있어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淨心·了元·儀仁 등 小木匠 畫員이 불전 장엄의 화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북지방 특히 팔공산 일대의 장엄불탁

²² “康熙二十七年戊辰六月初二日禪石 …… 山國□□□造成也”, “□登禪石寺□訪陳□蹤上岳□□□□喜同□□□植于而色……”, 「星州禪石寺大雄殿 佛卓墨書」(1688) 註 6 참고.



도 23 慶州 祇林寺 大寂光殿 佛卓

이 뛰어난 장엄미감과 소목기술을 가진 畫派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도22, 22-1}.²³

이 외 조선 후기 불탁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3단형 불탁 외에 2·4단의 불탁이 있는데, 2단형 구조는 祇林寺·雲興寺와 같이 평면 5×3칸의 중형 건물에 주로 나타나며, 조선 후기 三世佛·三身佛의 다불화 현상에 따른 불상의 규모와 불탁의 확대가 불탁의 높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도23}.

4단형 불탁은 후치법의 불전에 독존을 봉안한 소형불탁으로 현재 開日寺 圓通殿과 南長寺 불탁 2구가 있다. 남장사 불탁은 경상북도 장엄불탁의 축소판으로, 하대의 족대 내 장엄

²³ 건축양식에 있어 공포의 짜임이 침차에서 쇠시를 볼 수 없는 翹頭式 栱包는 조선 초기 공포 부재의 수법으로, 無昂昂의 공포형식인 銀海寺 百興庵 極樂殿 이외에 桐華寺 極樂殿, 松林寺 大雄殿(칠곡), 雲門寺 大雄殿·觀音殿, 大悲寺 大雄殿(청도), 通度寺 極樂殿(양산), 栗谷寺 大雄殿(산청) 등 대구 일원과 안동, 영주, 양산, 남원 등지의 新羅文化圈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교두형의 다포계 건물이 대구 일원을 중심으로 경북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장엄 불탁의 유구 역시 함께 意匠된다는 점은 주목할 특징이며, 주심포계 건물이 북측 상한선으로 생 각되는 鳳停寺 極樂殿(안동), 浮石寺 無量壽殿(영주), 實相寺 極樂殿(남원) 등 영주지역의 高麗文化圈에 집중 되어 일반형 불탁의 시원을 보여준다는 점은 佛殿 內外部の 치목 수법이 佛殿莊嚴의 의장수법과 같은 계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도 24 尙州 南長寺 佛卓,
直指寺聖寶博物館 소장

과 중대에 장식된 상하부연의 앙·복련 장식, 그리고 측면의 수장고화 등 불탁이 불전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3. 特殊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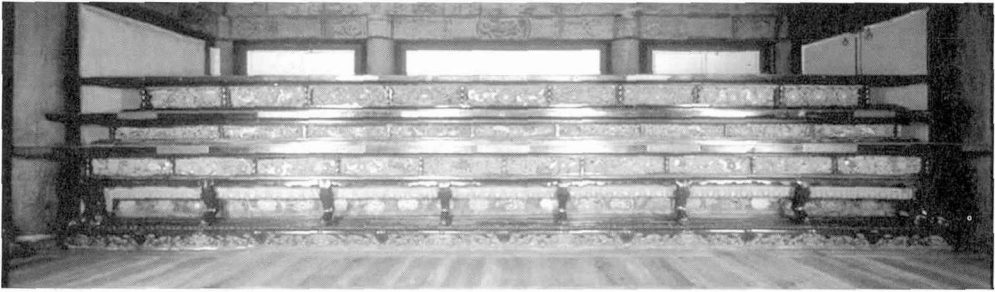
特殊形은 외형상 일반형 불탁과 다른 異形構造로 공예적 가구수법을 가진 環城寺 佛卓과 戒壇의 木材로의 변안인 通度寺 佛卓이 있다.

환성사 불탁은 본생담을 표현한 장엄불탁으로 정면 12칸, 측면 4칸의 1단 구조이다²⁵. 중대는 창호의 결구법인 머름대로 격간을 분절하고, 청판에는 蟹目形 眼象을 상하로 확대시켜, 본생담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²⁴ 전반적인 구조는 백흥암 불탁의 중대를 蟹

²⁴ 古代 眼象에 관한 論文은 高裕燮, 「佛國寺와 舍利塔」, 『高裕燮 全集』 3(通文館, 1993)을 시작으로 秦弘燮, 「韓國의 眼象文樣」, 『東洋學』 4(檀國大東洋學研究所, 1974)에서 체계화되었으며, 郭愛敬, 「韓國 造形物에 나타나는 眼象 및 風穴樣式에 관한 연구」(淑明大學校釋論, 1984)에서 목조 공예품의 안상 문양이 재정리되었다. 특히 蟹目形 眼象은 고유섭 선생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고려 청자 중 수 개의 다리가 달린 기대의 모습을 해목형 안상이라 칭하였다. 이것은 석조물 같이 내부가 충색된 괴체의 표면에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다리와 다리 사이를 개방하여 床脚을 보강·장식한다는 안상 본래의 형태를 잘 지닌 예로, 실상사 백장암을 상한으로 고려 말 석조물에 유행하였으며, 조선 후기 佛卓을 그 하한으로 보고 있다.



도 25 永川 環城寺 大雄殿 佛卓



도 26 梁山 通度寺 大雄殿 佛卓

目形 眼象 속에 회화적으로 도해한 것으로 廳板에 琪花瑤草와 어우러진 서수들의 동적인 움직임과 서사적인 즐거리를 민화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통도사 불탁은 불전 내 탁자를 통해 진신사리를 예경하기 위한 특수한 불탁으로, 受戒作法 · 登壇說法 · 舍利塔 供養 등 金剛戒壇과 연관된 특이한 불탁이다. 특히 이런 구조는 통도사가 유일한 것으로, 中臺의 幡裝飾과 風穴, 죽절형 童子木, 鷺脚形 足臺 등 불탁이 공양대로서의 보탁의 구조를 보여준다^{도26}. 이는 불탁이 대웅전의 용도에 따라 예경과 공양을 위한 탁자, 등단설법을 위한 설법상, 그리고 계단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기능적인 탁자로 변용되었음을 보여주며, 금강계단의 木材로의 翻案으로 생각된다.

형식분류 결과 조선 후기 불탁은 그 구조와 형식에 따라 고식형과 일반형, 그리고 특수형으로 분류되며, 일반형 불탁은 세부 특징에 따라 왜란 이전과 이후 고식과 신앙식을 수용하며, 정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IV. 朝鮮後期 佛卓의 空間·莊嚴의 特徵

1. 佛殿 內部 佛卓의 空間構成

조선 후기 불탁의 위치와 규모는 의식의 확대와 규모, 불상의 수와 연관을 가지며, 불전 내부 의식을 위한 좌석배치 및 면적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탁은 불전 내 高柱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며, 17세기 이후 불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불의 편리성을 위해 전면의 확대와 함께 불탁은 후퇴한다. 또한 규모에 대한 평면 비례는 불탁 상부에 봉안되는 불상의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장방형화되며, 불탁의 평면 역시 불전의 평면과 지붕양식과 연관성을 가진다.

17세기 불전의 규모는 3×2칸, 3×3칸, 5×3칸의 규모가 보편적으로, 공간구성은 주존을 안치하는 佛卓과 高柱·後佛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불전의 평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방형화되며, 소형화되는데 불탁 또한 그 양상을 따른다 표2.

불탁의 위치는 高柱에 따라 변화하여, 中心形·正置法·移住法·側坐法·後置法의 5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며, 시기적으로 정치법은 16세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다가, 17세기 후반에는 신도의 증가와 의례행위의 변화로 예불공간의 확보를 위한 이주법과 후치법이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법은 맞배지붕의 대규모 불전에 주로 사용되며, 이주법은 팔작지붕의 중규모 불전에, 후치법은 소규모 불전에 사용된다. 17세기 불탁의 위치는 정치법이 37%이고, 이주법과 후치법이 63%로 3×3칸의 팔작지붕을 중심으로 이주법이 현저히 증가하며, 전라도와 서남해안 지역에 이주율이 높게 나타난다. 후치법은 통도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3×2칸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이는 18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²⁵

이처럼 불전의 공간구조 변화는 불탁의 규모와 비례하며, 불탁의 점유율과 높이, 측면/정면의 비율이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변화한다. 불탁의 규모는 17세기 이전 평균 1:1.56에서

²⁵ 불전의 내주와 후불벽, 불탁 위치와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로는 4편의 논문이 있다. 裴秉宣, 『多包系 맞배집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金商賢, 『한국 사찰불전의 평면구성과 불단의 위치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李雨鍾·田鳳熙, 「단층불전 내주의 결구 및 배열 방식에 관한 연구」, 『文化財』 제33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김홍주, 『18세기 寺刹 佛殿의 건축적 특성』(연세대학교대학원, 2001).

표 2 불전의 평면비례와 불탁의 점유비 및 불탁의 높이

(단위 m)

| 사찰명 | 지역 | 불탁 위치 | 지붕 양식 | 규모 | 년대 | 불전 | | | | 불탁 | | | | 점 유 비 | 불탁 고 (cm) |
|----------|----|----------|----------|-----|------|-------|-------|-----------|------|-------|------|-----------|------|-------------|-----------------|
| | | | | | | 정면 | 측면 | 면적 (㎡) | 비 | 정면 | 측면 | 면적 (㎡) | 비 | | |
| 봉정사 극락전 | 경북 | 정치법 | 맞배 | 3×4 | 13C | 11.80 | 7.08 | 83.54 | 1.67 | 2.58 | 1.49 | 3.84 | 1.73 | 0.04 | 93 |
| 수덕사 대웅전 | 충남 | 정치법 | 맞배 | 3×4 | 1308 | 14.16 | 10.8 | 152.64 | 1.31 | 1.09 | 1.09 | 1.18 | 1 | 0.007 | 151 |
| 수덕사 대웅전 | 충남 | 정치법 | 맞배 | 3×4 | 1308 | 14.16 | 10.8 | 152.64 | 1.31 | 2.73 | 1.54 | 4.20 | 1.77 | 0.02 | 100 |
| 수덕사 대웅전 | 충남 | 정치법 | 맞배 | 3×4 | 1308 | 14.16 | 10.8 | 152.64 | 1.31 | 7.96 | 1.51 | 12.0 | 5.27 | 0.08 | * |
| 봉정사 대웅전 | 경북 | 이주법 | 팔작 | 3×3 | 1361 | 13.41 | 8.82 | 118.28 | 1.52 | 4.14 | 1.93 | 7.99 | 2.14 | 0.06 | 110 |
| 부석사 무량수전 | 경북 | 측좌법 | 팔작 | 5×3 | 1376 | 18.75 | 11.57 | 216.94 | 1.62 | 5.45 | 4.63 | 25.23 | 1.17 | 0.11 | 118 |
| 평균(4棟) | | | | | | 14.53 | 9.56 | 142.85 | 1.53 | 5.03 | 2.39 | 12.26 | 2.57 | 0.07 | 114 |
| 무위사 극락전 | 전남 | 정치법 | 맞배 | 3×3 | 1430 | 11.52 | 7.88 | 90.78 | 1.46 | 3.18 | 2.01 | 6.39 | 1.58 | 0.07 | 82 |
| 개심사 대웅전 | 충남 | 이주법 | 맞배 | 3×3 | 1483 | 10.95 | 7.93 | 86.83 | 1.38 | 3.38 | 1.93 | 6.52 | 1.75 | 0.07 | 116 |
| 화암사 극락전 | 전북 | 이주법 | 맞배 | 3×3 | 1605 | 9.88 | 6.29 | 62.15 | 1.57 | 4.55 | 1.90 | 8.64 | 2.39 | 0.13 | 108 |
| 파계사 원통전 | 경북 | 이주법 | 맞배 | 3×3 | 1605 | 9.10 | 7.40 | 67.34 | 1.23 | 3.51 | 1.84 | 6.45 | 1.90 | 0.09 | 116 |
| 선운사 대웅보전 | 전북 | 정치법 | 맞배 | 5×3 | 1613 | 21.40 | 10.10 | 216.14 | 2.12 | 13.70 | 2.60 | 35.62 | 5.26 | 0.16 | 136 |
| 청곡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팔작 | 3×2 | 1612 | 12.25 | 8.05 | 98.61 | 1.52 | 4.92 | 1.98 | 9.74 | 2.48 | 0.09 | 87 |
| 정혜사 대웅전 | 전남 | 이주법 | 팔작 | 3×2 | 1617 | 8.53 | 5.90 | 50.33 | 1.45 | 3.91 | 1.74 | 6.80 | 2.24 | 0.13 | 105 |
| 각연사 대웅전 | 충북 | 정치법 | 맞배 | 3×3 | 17C | 11.55 | 8.65 | 99.91 | 1.34 | 4.51 | 1.88 | 8.47 | 2.39 | 0.08 | 90 |
| 관룡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팔작 | 3×3 | 1617 | 9.18 | 7.53 | 69.13 | 1.22 | 3.83 | 1.76 | 6.74 | 2.17 | 0.09 | 108 |
| 전등사 대웅보전 | 경기 | 이주법 | 팔작 | 3×3 | 1621 | 8.08 | 7.49 | 60.52 | 1.08 | 4.85 | 2.14 | 10.3 | 2.26 | 0.17 | 96 |
| 기림사 대적광전 | 경북 | 정치법 | 맞배 | 5×3 | 17C | 19.30 | 10.40 | 200.72 | 1.85 | 10.68 | 2.06 | 22.00 | 5.18 | 0.10 | 108 |
| 쌍계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팔작 | 5×3 | 1632 | 17.88 | 10.32 | 184.52 | 1.73 | 10.26 | 2.45 | 25.13 | 4.18 | 0.13 | 127 |
| 내소사 대웅보전 | 전북 | 이주법 | 팔작 | 3×3 | 1633 | 12.32 | 8.58 | 105.71 | 1.44 | * | * | * | * | * | * |
| 불갑사 대웅전 | 전남 | 이주법 | 팔작 | 3×3 | 1635 | 11.16 | 7.46 | 83.25 | 1.50 | * | * | * | * | * | * |
| 화엄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팔작 | 5×3 | 1636 | 19.21 | 11.38 | 218.61 | 1.69 | 11.75 | 3.92 | 46.06 | 2.99 | 0.21 | 109 |
| 참당사 대웅전 | 전북 | 정치법 | 맞배 | 3×3 | 1642 | 10.60 | 8.10 | 85.86 | 1.31 | 4.63 | 1.69 | 7.82 | 2.73 | 0.09 | 110 |
| 백흥암 극락전 | 경북 | 이주법 | 팔작 | 3×3 | 1643 | 10.03 | 6.92 | 69.41 | 1.45 | 4.13 | 1.86 | 7.68 | 2.22 | 0.11 | 108 |
| 평균(17棟) | | | | | | 12.52 | 8.25 | 108.81 | 1.49 | 6.11 | 2.11 | 14.29 | 2.78 | 0.11 | 107 |
| 직지사 대웅전 | 경북 | 이주법 | 팔작 | 5×3 | 1651 | 16.35 | 10.25 | 167.59 | 1.60 | 10.68 | 2.06 | 22.00 | 5.18 | 0.13 | 108 |
| 운흥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맞배 | 5×3 | 1651 | 14.30 | 9.15 | 130.85 | 1.56 | 9.46 | 2.10 | 19.86 | 4.50 | 0.15 | 97 |
| 운문사 대웅보전 | 경북 | 정치법 | 팔작 | 3×3 | 1653 | 15.76 | 11.97 | 188.65 | 1.32 | 7.29 | 2.74 | 19.97 | 2.66 | 0.10 | 107 |
| 울곡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팔작 | 3×3 | 17C | 10.70 | 6.90 | 73.83 | 1.55 | 5.50 | 2.37 | 13.0 | 2.32 | 0.17 | 91 |
| 개암사 대웅보전 | 전북 | 이주법 | 팔작 | 3×3 | 1657 | 11.85 | 7.81 | 92.55 | 1.52 | 5.90 | 2.92 | 17.2 | 2.02 | 0.18 | 108 |
| 다보사 대웅전 | 전남 | 후치법 | 맞배 | 3×2 | 17C | 5.17 | 4.13 | 23.58 | 1.38 | 3.17 | 1.42 | 4.50 | 2.23 | 0.19 | 89 |
| 범어사 대웅전 | 경남 | 정치법 | 맞배 | 3×3 | 1658 | 11.72 | 9.75 | 114.27 | 1.20 | 10.14 | 2.79 | 28.29 | 3.63 | 0.24 | 112 |
| 위봉사 보광명전 | 전북 | 정치법 | 팔작 | 3×3 | 1675 | 11.28 | 8.01 | 90.35 | 1.41 | 7.44 | 2.14 | 15.9 | 3.47 | 0.17 | 110 |
| 미황사 대웅전 | 전남 | 이주법 | 팔작 | 3×3 | 17C | 11.40 | 8.00 | 91.20 | 1.43 | 6.32 | 2.04 | 12.8 | 3.09 | 0.14 | 91 |
| 안심사 대웅전 | 충북 | 후치법 | 맞배 | 3×2 | 17C | 10.16 | 5.18 | 52.63 | 1.96 | 5.34 | 2.14 | 11.4 | 2.49 | 0.21 | 82 |
| 대비사 대웅전 | 경북 | 정치법 | 맞배 | 3×3 | 1685 | 10.55 | 7.44 | 78.49 | 1.42 | 4.64 | 1.99 | 9.23 | 2.33 | 0.11 | 101 |
| 동화사 대웅전 | 경남 | 이주법 | 팔작 | 3×3 | 1727 | 12.14 | 8.69 | 105.50 | 1.40 | 6.26 | 2.57 | 16.0 | 2.43 | 0.15 | 99 |
| 평균(12棟) | | | | | | 11.78 | 8.10 | 100.7 | 1.47 | 6.84 | 2.27 | 15.8 | 3.02 | 0.16 | 99.5 |
| 평균(33棟) | | | | | | 12.16 | 8.36 | 110.0 | 1.49 | 6.26 | 2.21 | 14.63 | 2.85 | 0.12 | 105.4 |



도 27 昌寧 觀龍寺 大雄殿 佛卓, 1631년

17세기 후반 1:3.02로 불상 수의 증가에 따른 불탁의 정면 비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불탁의 공간 占有率 역시 17세기 이전 7%에서 17세기 중반 11%, 후반 16%로 증가하여, 조선 후기 불탁이 불상을 봉안하는 壇에서 佛事나 儀式을 위한 헌공구를 진설하는 공양대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 또 이런 양상은 불탁의 높이에서도 나타나는데, 17세기 이전 불탁의 높이가 평균 114cm였던 것이 17세기 중반에 108cm, 17세기 후반에 99.5cm로 낮아져, 불탁이 불상공양에 이상적인 높이로 줄어들고 있는 데서도 입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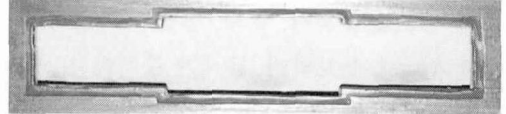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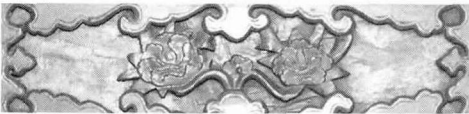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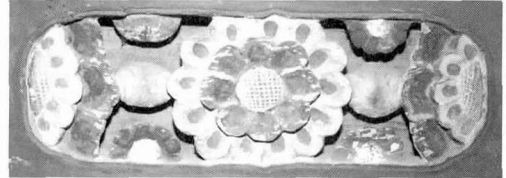
2. 佛卓 中·下臺의 構造와 表面莊嚴

17세기 정형화된 불탁에는 중·하대의 표면에 다양한 문양이 투각 또는 그려지게 된다. 중대는 격간을 구성하는 장엄구조에 따라 廳板과 眼象, 그리고 들을 합친 조합형으로 세분화되며, 하대는 중대를 지탱하는 기단의 모습에 따라 足臺形式과 臺形式으로 분류된다.

청판은 격간 내부에 다양한 길상문을 투각한 것으로 화훼문을 배경으로 본생담에 등장하는 동식물이 주류를 이루며, 수법은 문양을 투각한 것, 채색한 것 등 두 가지 표현방식이 있다. 중대가 장엄된 불탁은 전체의 40% 이상으로, 특히 경상북도에 집중되어 있다^{도27}.

²⁶ 朝鮮時代 一判集에 “法堂三間 則主佛一尊表中道 左右補處皆菩薩立象表眞浴 二諦云云 …中略… 五間則三如來四菩薩皆立, 七間則五如來元光菩薩, 九間則七如來八大菩薩……”이라 하여 佛殿內 佛像數와 佛殿規模의 相互關係를 규정하고 있다. 宋秉浩, 『韓國寺刹建築空間에 관한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p.55-57 참고.

도 28 高昌 禪雲寺 懺堂庵 大雄殿 佛卓,
1684년



도 29 a. 文殊寺 大雄殿 蓮花形 眼象
c. 美黃寺 大雄殿 唐草形 眼象

b. 觀龍寺 大雄殿 雲形 眼象
d. 栗谷寺 大雄殿 亞子形 眼象

안상은 연화대좌의 추상화된 표현으로, 격간 내부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상과 안상 내부에 다양한 문양을 조각한 복잡한 형상, 두 가지로 분류된다^{도28}. 단순한 안상은 주로 전라도와 경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채색과 투각된 안상은 청관장엄처럼 경상도 지방에 주로 집중된다. 특히 안상문양은 추상적이고 장식적이며, 나아가 다양한 도상으로 표현되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삼도4}.²⁷

첫째, 연화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호형이 연결된 蓮花形, 둘째, 호형이 굴곡 없이 대칭을 이루며 구름 모습을 한 雲形, 셋째, 윤곽선 상하좌우 모서리에 寶珠文이 대칭으로 배치되고

²⁷ 불탁 중·하대의 구조와 장엄은 許詳浩, 『朝鮮時代 佛卓莊嚴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참고.



도 30 報恩法主寺 圓通寶殿 佛卓

그 외곽으로 복잡한 파선이 혼선된 唐草形, 넋째, 圓形·亞子形 등 도안적인 문양의 幾何學形 眼象으로 나눌 수 있다. 안상 역시 청판과 같이 내부는 문양을 투각하거나, 채색하는 두 가지 표현수법을 보여주며, 중대 표면구성의 60%를 차지하고 있다²⁹.

이 외 조합형은 청판과 안상이 혼용된 구조로, 첫째, 중대를 중심으로 문양이 정면과 측면이 동일한 구조와, 둘째, 정면과 측면이 상반된 두 가지가 있다³⁰. 청판의 투각문양과 함께 전국에 분포하며, 17세기 불전의 장식화 경향에 따른 불탁장엄의 보편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하대는 床脚을 지닌 足臺形式과 받침대의 성격을 띤 臺形式으로 분류된다.

족대는 탁자의 긴 다리를 모방하여 표현한 것으로 족대 내부에 표현된 문양의 방법에 따라 重疊形, 雲形, 草刻形, 그리고 족대 내부에 문양을 표현한 莊嚴形으로 분류된다³¹²⁸.

²⁸ 중첩형은 족대의 윤곽선이 이중으로 겹쳐진 모습으로 수덕사·보경사 등 고려 말 조선 전기 불탁에 나타나며, 운형보다 격간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운형은 三葉華形의 如意頭文을 중심으로 波線이 좌우로 펼쳐진 雲文으로, 중앙에 여의두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17세기 일반형 불탁 하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간략해지며, 추상화된다. 초각형은 운형의 중심부인 삼엽화형의 여의두문 아래 당초문이 좌우로 펼쳐진 모습으로, 주로 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청판장엄과 함께 나타난다. 장엄형은 족대 내부에 문양을 투각한 것으로 귀면이나 용 등이 불탁을 결계하는 의미로 표현된다. 특히 장엄형은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장엄불탁의 하대에 주로 나타나며, 경상북도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 밖에 하대에는 족대 외에 건물의 기단처럼 하대를 받침대로써 지탱한 臺形式이 있다. 그 형식은 하대에 굴곡을 준 오목형과 굴곡 없이 통자형 널을 짜맞춘 직선형이 있으며, 불탁의 하대가 마루와 바로 맞닿는 지대목형의 3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오목형과 직선형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대형불전에만 등장하는데, 이는 불전의 규모에 따른 불탁의 크기와 하중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삼도 5 및 註 27 참고).

도 31 梁山 通度寺 觀音殿 卓衣,
1891년, 通度寺聖寶博物館 소장



도 32 梁山 通度寺 大雄殿 卓衣,
1890년, 通度寺聖寶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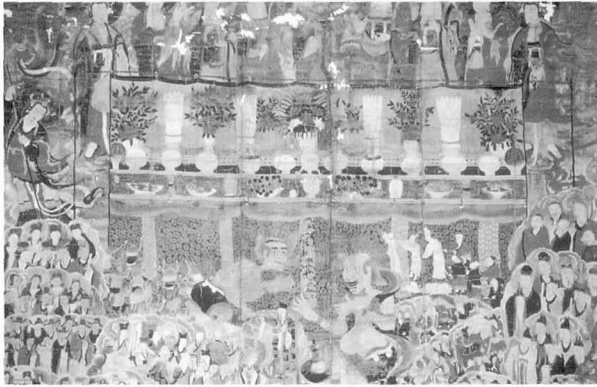


이 외 불탁에는 문양의 흐름 외에 탁의, 동자목, 경첩, 고리 등 기타 수장재에 따른 표면 장엄이 있다.

卓衣는 그 양식에 있어 통도사나 선암사에 등장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첫째 塔胡와 같은 직물에 須彌山을 상징한 九山八海와 皇帝를 상징하는 五足の 황룡을 장식한 것과 둘째, 蓮華唐草文과 雲文을 중심으로 遮面을 조식한 것으로 분류된다.²⁹ 차면의

²⁹ 通度寺의 卓衣櫃에는 “卓衣 灌浴 沈帳 等 對靈 外諸古品”이란 명문이 있어 卓衣가 항시 불탁에 상설된 것이 아니라 灌浴禮와 對靈禮와 같은 불교의례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감로탕에 등장하는 수륙재·칠칠재 등 靈駕遷度齋를 위한 탁의와는 그 용도가 다른 특이한 도상으로 “法堂五間 佛乃三尊幀有拾 伍三軸後佛 三軸掛佛 一軸中壇 一軸 …… 卓衣有 上壇卓衣 中壇卓衣 揮帳有二 ……”, 『禪雲寺法堂 常用器皿什物 傳掌記』, 『禪雲寺蹟』(1686)라 하여 조선 후기 三段分壇法에 의해 구분지어진 불전 내 위계질서가 卓衣라는 부기물을 빌어 그 용



도 33 寶石寺 甘露幀, 1649년, 麻本彩色, 238×228cm,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로 구성된 탁의는 일반적으로 감로탱에서 볼 수 있는 卓衣로 赤色과 青色의 대비 아래 그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다^{도31}. 그러나 통도사 대웅전의 탁의는 現前安樂과 當往蓮界·誕辰國齋 등 개인의 기복을 담은 것으로, 해인사 金銅毘盧遮那佛 腹藏物과 上院寺 복장물처럼 個人의 安寧과 來世를 위한 加被를 기원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도3, 3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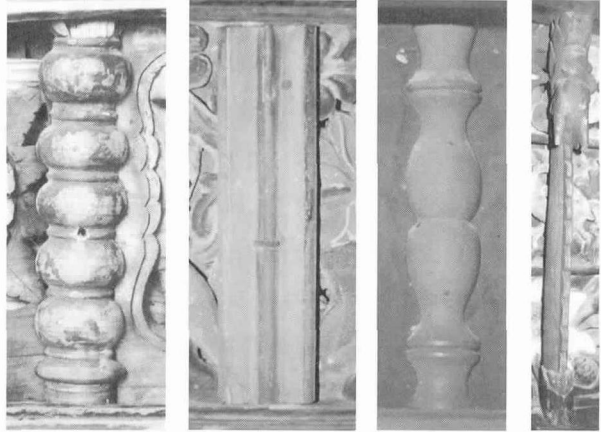
이 외 고리는 개심사·위봉사·남장사·고운사 등 일부 불탁에서만 그 유구를 볼 수 있는데, 불탁의 보편적인 수장재로 의례 집전을 위한 부기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리의 쓰임은 甘露幀에서 보이는 卓衣나 대독·당을 가설하기 위한 수장재로 연주형의 고리인 環과 栞쇠로 정형화된 것 같다^{도33}.

경첩은 천판의 연귀맞춤이나 머름구조의 이음을 마감하기 위한 수장재로서 약과경첩의 관룡사·용천사와 제비추리 경첩의 화암사, 栞쇠형 세발장식의 미황사·위봉사 등에 나타

도와 기능에 맞게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³⁰ 선암사 탁의는 황제의 곤룡포를 본떠 如意珠를 중심으로 황룡을 도상화한 작품으로, 중앙의 '聖壽萬年'이란 명문을 통해 王의 萬歲와 祝壽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특수한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탁의에 시문된 納紗繡法은 전형적인 明代의 戳紗繡란 기법으로 명대 神宗 萬曆皇帝(1573-1620)와 황후의 능인 定陵에서 출토되었으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의 <刺繡捧螺仕女>와 동일한 형태이다. 이는 前世에 입던 옷을 佛腹藏에 넣어 부처의 가피를 입으려는 주술적인 의도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불복장의 납입처럼 불상을 장엄하는 탁의의 시주와 제작이 부처의 가피를 얻는 功德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는 전란 이후 팽배한 내세의 기복신앙과 그 맥을 함께 하며, 주술적이며 민간신앙화된 불교의식의 변화가 조선 후기 불탁 문양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仙巖寺聖寶博物館, 『仙巖寺聖寶博物館名品圖錄』(2003), p.76-79; 許興植, 「1302年 阿彌陀佛腹藏의 造成經緯와 思想傾向」,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1991), p.41; 註 7, 8 참고.

도 34 a. 定慧寺 大雄殿 연화형 동자목
 b. 百興庵 極樂殿 솟을동자형 동자목
 c. 法主寺 圓通寶殿 조롱형 동자목
 d. 直指寺 大雄殿 죽절형 동자목



나며, 통도사와 같이 풍혈과 경첩을 불단 전면에 장엄한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 외 17세기 康熙·乾隆期の 臺座의 장식적 특징인 마름모꼴 금박은 문수사를 비롯하여, 관룡사·고운사 등 불탁 중대목의 장엄으로 등장하며, 갑사·전등사·불갑사·용천사의 천판 귀솟음과 선운사·수덕사·부석사·정혜사·통도사의 삼엽화형 홍살은 고식불탁의 특징을 답습한 중대 장엄의 특수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 중대 격간을 구획하는 童子木은 보편적인 구조의 연주형을 비롯하여 솟을동자형·통자형·조롱형으로 분류되며, 직지사·통도사와 같이 특수한 유형도 등장한다^{삼도6}.

연주형은 상하 중간간의 이음 없이 連珠가 끊임없이 연결된 것(I形式)과 그 변형인 중간 이음새를 充填한 것(II形式), 좌우 끝을 마름모꼴로 조식한 것(III形式)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며, 가장 보편적인 격간의 동자목으로 사용된다.

또 중앙 오목구조를 지닌 솟을 동자형과 그 면이 평평한 통자형·원주형 등은 그 예가 소수이나 경상도 지방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머름판의 가구 구조인 고식의 동자목도 그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 밖에 특수형의 육각 동자목과 조롱형 동자목은 전라도·충청도 지역의 불갑사·화암사·법주사에 나타나며, 경상도 지역에서는 통도사·직지사에서 볼 수 있는 죽절형 동자목과 상부 '壽福'의 文字와 龍頭를 장엄한 직지사의 桴柱가 특수한 예에 속한다^{도34}.

이상 언급한 중대의 기타 수장재는 불탁이 의식 집전을 위해 다각화된 형태의 부가물을 장엄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불탁이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3. 佛卓의 文樣과 象徵性

조선 후기 일반형 불탁의 문양은 크게 기능과 장엄의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문양은 守護와 辟邪, 그리고 예불과 의례를 위한 供養의 두 가지 기능과, 불탁 장엄을 위한 단순한 장엄성향을 가진다. 또 불상수호와 공양을 상징하는 문양 외에 奏樂飛天·龍·鳳凰·麒麟 같은 불교적인 조형이 吉祥文으로 자리잡아 가며, 장엄문양 중 釋迦前生の 동·식물을 주체로 本生譚을 도해한 것, 그리고 민간신앙의 내용이 변용되어 불교화된 것 등 불탁문양이 17세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³¹

불탁에 등장하는 기능적인 문양으로는 첫째, 불상수호와 벽사를 상징하는 金剛杵와 供養花·鬼面·龍 등이 있다. 고려 말 조선 전기 불탁에서 처음 표현되며, 일반형 불탁으로 정형화되기 이전, 불탁이 불상을 봉안하는 불좌의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금강저는 불상수호의 초기 문양으로 불상을 예경하며, 불탁이 신성한 장소로서 구획을 결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³⁵. 고려 이후 사라져, 조선 후기에는 귀면이나 용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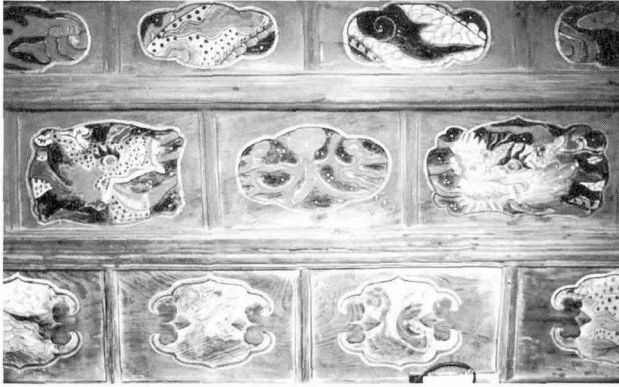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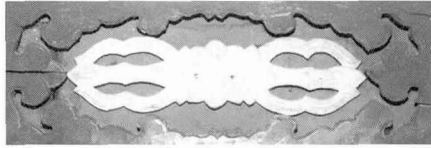
귀면은 조선 전기 불탁인 봉정사·보경사 불탁에 처음 등장하여, 일반형 불탁에 정착된다. 용과 귀면은 1688년 선석사 불탁처럼 청판의 전면에 표현되거나, 청판의 좌우 모서리 또는 중대의 하단이나 하대에 배치되어 불탁이 불상을 수호하는 고유의 기능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⁶.³³

³¹ 조선 후기 불탁에는 무언가 암시적인 상징성을 내포한 설화적 구성이 도해된다. 이는 17세기 『本生經』을 중심으로 형성된 佛典과 說法의 주체가 불교대중화에 따른 내세 극락왕생의 시대적 조류와 함께 언어의 포교보다 도상적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불탁 문양 역시 이전에 볼 수 없는 천상계와 축생계의 동식물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불탁에 등장하는 본생담은 동물과 식물의 모습으로 선업을 행하는 부처의 전생 업에 대한 윤회의 내세관과 더불어 교훈적 메시지로 전달한다. 특히 불탁에는 人間과 仙人의 모습보다 축생계의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17세기 전란 이후 佛者が 바라는 내세관과 기복적인 사고관이 國譯佛典에 등장하는 因果應報·善惡說 등으로 압축되어 청판 속에 묘사되고 있다. 이는 그 說話들이 時空을 초월한 虛構라는 측면을 내재하며, 十方三世의 무제한 時空 속에 佛·菩薩·天·人·人非人 등 현실 및 가상의 모든 존재가 벌이는 聖俗間的 諸般事件들을 중심으로 경이롭고 장엄한 敍事의 구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³² 고려시대 금강저문은 高裕變, 「高麗의 佛寺建築」, 『高裕變 全集』 2(1993), p.239에서 高麗 心源寺 大雄殿 불단에 시문된 金剛杵·插花瓶 등의 眼象 彫刻을 고려시대 문양의 특징이라 언급하고 있다.

³³ 불탁에 표현되는 용과 귀면의 배치는 다양하다. 파계사나 관룡사처럼 사천왕의 방위를 의식하듯 청판 좌우 모서리 사면에 배치한 경우와 선석사·법주사처럼 청판 전면을 龍身이나 용생구자설의 독특한 도상으로 표현한 경우, 그리고 전등사·정혜사·금산사·환성사처럼 중대의 하단에 배치한 경우가 있다. 특히 중대 하단에 배치된 귀면의 경우는 그 시선들이 중앙을 정면을, 좌우는 안쪽을 응시하는 동적인 모습으로, 문양을 통해 사방을

도 35 修德寺 佛卓
金剛杵門



도 36 星州 禪石寺 大雄殿 佛卓 龍文, 1688년

도 37 木造佛壇莊嚴花, 朝鮮 後期, 높이 71cm,
유물번호: 晉洲 1151, 國立晉州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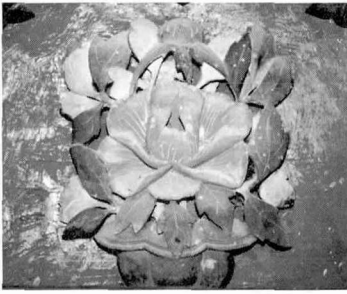


돌재, 불탁을 꽃으로 장엄하는 것은 불상 공양 중 으뜸의 의미로 조선 후기 일반형 불탁이 공양을 위한 탁자로서 그 기능을 하였음을 의미한다^{도21}. 꽃문양은 蓮花唐草·寶相花文 같은 불교적 길상화와 牡丹·菊花文 등 현실의 길상화가 주류를 이루는데, 불탁에서는 이를 압축하여 입체적으로 장엄한 佛壇莊嚴花가 있다^{도37}.³⁴

특히 불탁을 꽃으로만 장엄한 경우는 꽃을 花盤이나 淨瓶에 담아 供養花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때의 공양화는 富貴와 多産을 상징하는 牡丹文과 菊花文이 주류를 이룬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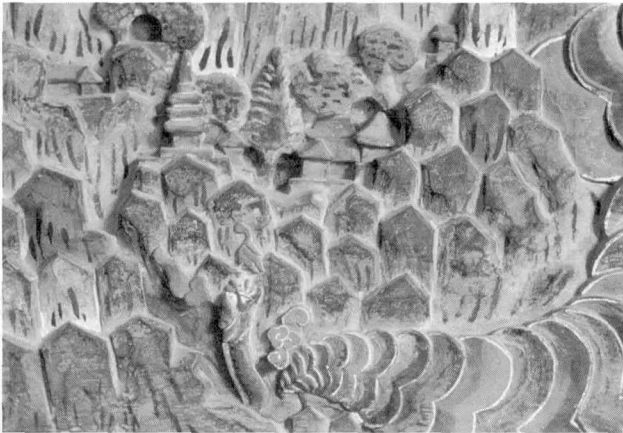
감시하는 벽사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³⁴ 佛壇莊嚴花는 현재 진주박물관과 미황사에 2구가 있다. 진주박물관 소장 莊嚴花는 美黃寺것 보다 두각이나 기법에서 세련된 것으로 하부의 거북을 座臺로, 연봉의 자방에서 화생하는 개구리·童子·鶴 등을 표현하였으며, 상부에는 日·月을 상징하는 둥근 원형의 寶珠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이는 불탁장엄의 축소판으로 거북을 하대로, 莊嚴花를 중대로 표현하고, 원형보주를 불탁 위에 봉안되는 佛像으로 미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김용두용기증문화재 도록』(국립진주박물관, 1997), 유물번호: 晉洲 1151 참고.



도 38 修德寺 佛卓 供養花文

도 38-1 羅州 多寶寺 大雄殿
佛卓 供養花文



도 39 金泉 直指寺 大雄殿 佛卓 須彌
山圖, 1651년

꽃을 담은 정병은 당시 유행한 기물을 보여주는데, 고려시대 수덕사의 공양화가 청자의 기물을 가진 花盤이었다면 도38, 17세기 공양화는 청화백자인 花尊의 모습을 담고 있어 불탁의 문양이 시대상을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도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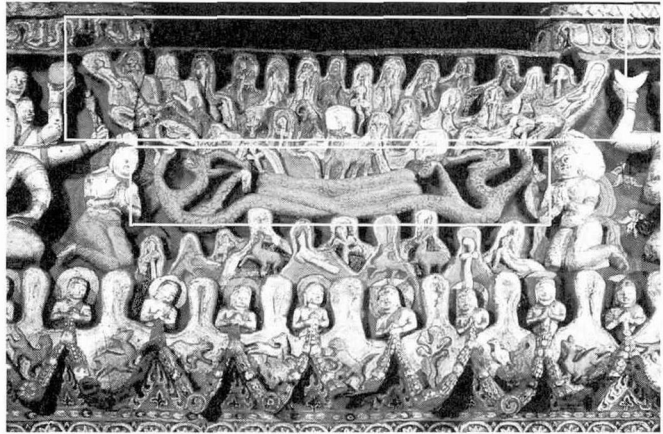
이 외 일반형 불탁에는 수호와 공양을 상징하는 문양 외에 불교적 색채를 띤 길상문이 나타난다. 주로 용·봉황·코끼리·가릉빈가 등 불교적 상징형이 주류를 이루며, 불전장엄과 함께 불탁을 佛國土로 미화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직지사 불탁에는 불탁이 불전의 중심이라는 수미산을 상징하듯, 바다 위에 떠 있는 龍과 寶殿을 형상화한 수미산의 모습을 용이 탑과 사찰을 떠받드는 모습으로 변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도4.39. 이는 조선 후기 불탁이 외형상 기능적인 탁자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불탁이 불전의 중심에 있다는 수미산의 상징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런 수미산의 상징성은 조선 후기 정형화된 일반형 불탁의 문양 구조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불탁은 하부에 벽사를 상징하는 용이나 귀면을 배치하고, 중앙에 주악비천과



도 40 釜山 梵魚寺
大雄殿 佛卓



도 40-1 中國 雲崗石窟
第10洞 前室北壁 門口,
北魏, 6세기

천녀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그 주위를 외호하는 모습으로 불타를 장엄한다^{도40}. 문양과 구조는 수미산을 표현한 중국 운강석굴 제10굴의 수미산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하부의 용을 중심으로 상광하협의 구조물을 만들어 그 구획 속에 동·식물을 장엄하는 동일한 모티브를 보여준다^{도40-1}.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문양 외에 조선 후기 불타에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도상들이 표현된다. 도상은 전란 이후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고 많은 불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輪廻·因果·蓮花化生과 같은 현실적 바램을 담은 본생담의 도상과 그 내용을 각색한 각종설화의 변질된 도상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³⁵

도상 중 대표적인 것은 계율과 연관된 부처전생의 이야기로, 불타에서는 「靑鷺本生」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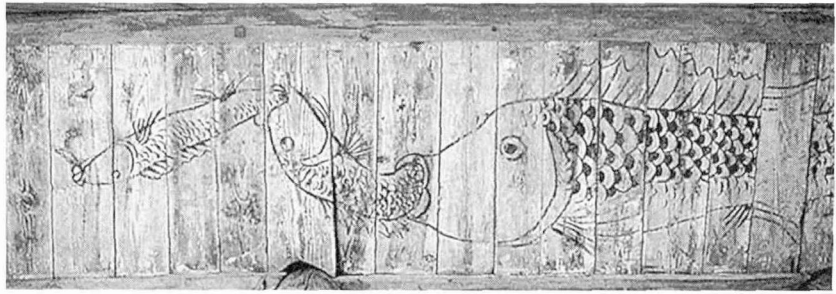
도 41 傳燈寺 佛卓 靑鷺本生文



도 42 環城寺 佛卓 人非人文

「雛鳥本生」의 이야기를 담지한 윤희·업보의 살생장면이 있다^{도41}. 이 장면은 연못에서 해오라기가 물고기를 유인하여 물고기를 살생하는 장면으로, 물고기가 윤희를 통해 부처의化身으로 등장하며, 어리석은 이의 욕심과 그릇된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³⁵ 불타에 표현되는 본생담은 계율을 중시한 『本生經』 31.雛鳥本生: 38.靑鷺本生: 75.魚族本生: 380.疑姬本生에 등장하는 살생장면과 삶의 지혜를 지닌 77.大夢本生: 121.吉祥草本生, 탐욕과 욕망을 자제하라는 128.貓本生: 187.四美本生, 자비행을 강조한 203.健度本生 등 교훈적인 내용과 193.小蓮華王本生: 261.蓮華本生 등 본생담의 敘事內容을 압축한 도상 및 불전설화가 국문소설화된 57.猿王本生: 208.鬚本生 등이 있다. 東國譯經院, 『本生經』 1, 2, 3, 4, 5(1986) 참고. 특히 조선시대는 崇儒抑佛政策에도 불구하고 外儒內佛을 유지하며, 그 효과적인 포교방법으로 불교계의 서사문학을 계승한 불전문학이 발전하였다. 당시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는 『釋譜詳節』(1447), 『月印釋譜』(1459)를 비롯한 전적들이 있었으며, 부처님의 본생에 대한 이야기로는 『釋迦如來十地修行記』(1660) 등이 개간되기도 하였다. 洪川 壽陀寺의 경우에는 『月印釋譜』가 新造된 불상의 복장으로 사용되었고, 慶州 祇林寺의 緣起文에는 「安樂國太子傳」의 한문본이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國文佛典의 간행과 유포는 대중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것은 佛敎敎化에도 이용되어, '부처님의 一生'은 각종 전적의 목판화나 팔상도로 그려지는 한편 그 '本生'은 神話의 형태의 有·無情으로 假託되어져 전각 내 불타에 일부 圖解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國文佛書가 궁중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각 寺庵의 無名僧尼, 그리고 士大夫 兩班婦女들이 護持·讀誦하는 大衆佛典으로 그 위치를 잡아가는 것과 흐름을 함께 한다. 史在東, 『佛敎系 國文小說의 研究』(중앙문화사, 1994), pp.10, pp.130~131 참고. 특히 전란 이후 내세에 대한 불교로의 귀의는 글을 모르는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불화와 같은 도상을 통해 포교화되는데, 불타에 나타나는 '本生'의 圖解 역시 國文佛典의 民譯化를 동반하면서 도상의 생략과 축약을 통해 장엄된 것으로 보인다.



도 43 堤川 神勒寺 極樂殿 合角
大須陀須摩本生文



도 43-1 銀海寺 百興庵 阿彌陀魚文

불탁에 등장하는 윤회와 관련된 주목되는 도상으로는 상상의 인물인 人非人과 나찰이 있다. 이 장면은 본생담의 「三法本生」과 「箱本生」을 도해한 것으로 죄업을 받아 업보를 짊어진 나찰과 신구의 모습을 표현한다. 환성사 불탁에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전생의 업보를 보여주는 業鏡을 쥔 나찰과 寶珠를 공양하는 괴인으로 표현되는데, 전생의 죄업을 윤회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仙人도 아닌 人非人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불탁이 불전을 찾는 글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윤회의 구조를 시각적인 구도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도42}.

특히 이런 인과·윤회와 관련된 다양한 줄거리는 17세기 불전 장엄에서도 문양의 확산을 보여주는데, 불전의 합각에 등장하는 「大須陀須摩本生」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도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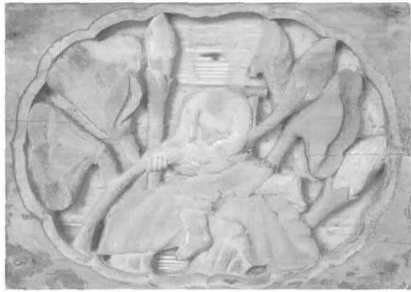
「대수타수마본생」은 鯨魚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弱肉強食의 섭리 아래 물고기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회를 보여주는 본생담으로, 불탁에서는 인간고의 시름을 들어주는 人頭魚神의 阿彌陀魚로 나타나 당시 불탁과 불전이 지녔던 통일된 문양의 반향을 보여준다^{도43-1}.

이 밖에 본생담이 각색되어 불전설화의 도상으로 정착된 토끼전이란 도상이 있다. 이는 본생담의 「鱈本生」과 「猿王本生」의 장면을 도해한 것으로, 17세기 중반 백홍암의 도상에서는 보주를 찾아 떠나는 거북의 모습으로 묘사되나, 표충사의 불탁에서는 자라 위에 앉아 용궁으로 향하는 『토끼전』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불탁이 민간유행의 설화들을 문양에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44}.

또 불탁에는 본생담의 이야기가 민간신앙의 현실적 바램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길상문으



도 44 密陽 表忠寺 大光殿 龜主簿傳文



도 45 順天 定慧寺 大雄殿 蓮生貴子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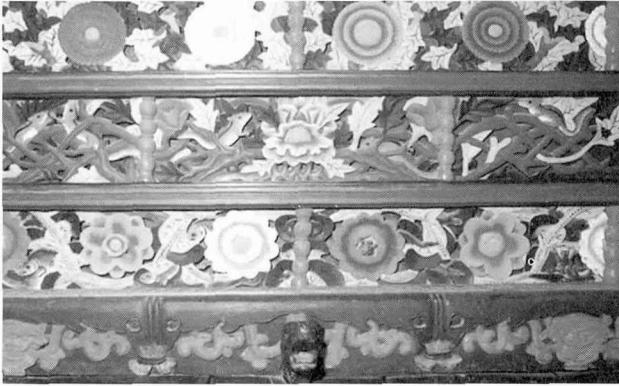
도 45-1 晉州 靑谷寺 大雄殿 童子文

로 도해되는데, 신선에 대한 민간인들의 믿음이 표현된 민간신앙의 불교화된 도상들이 있다.

蓮池를 배경으로 化生하는 동자의 도상이 그 대표적인 도상으로, 「小蓮華本生」, 「大蓮華王子本生」 등 본생담의 이야기를 함축한 蓮生貴子の 도상으로 묘사되며 도45, 17세기 후반에는 多産을 상징하는 포도문이나 목단을 권 동자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도45-1. 이는 초기 본생담을 도해한 연꽃과 어우러진 동자의 모습에서 동자가 손에 권 연꽃이 불·보살의 징표임을 상징하였으나, 전란 이후 부녀자들의 蓮花化生·子孫繁昌과 같은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며, 불탁의 문양 역시 당시 유행한 祈福의 百童子圖의 도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이런 동자문은 연꽃과 수초와 같은 수생식물과 함께 용·오리·도롱뇽 등 수생계의 동물들을 함께 표현하는데, 불탁을 龍宮이나 龍船 같은 수중계의 문양으로 장엄하는 것은 불전의 취약점인 火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消災具의 기능적인 면을 보여준다 도46. 이는 17세기 이후 불전 장엄의 반향으로 선암사 대웅전 부연에서 볼 수 있는 “海”, “水”의 消災文字를 비롯하여 천정을 藻井이라 하여 수중세계로 묘사한 금광사·정혜사·전등사 대웅전의 천정 장엄, 그리고 운문사 관음전의 龍船에 이르기까지 불탁 문양의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도46-1.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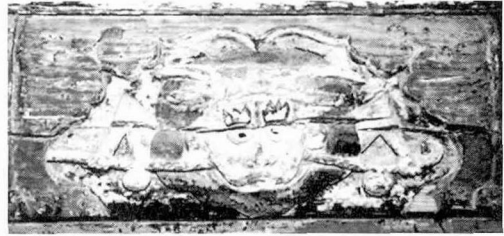
이 외에도 민간신앙과 불교적 길상문이 결합된 불탁의 대표적인 도상으로 환성사 불탁이 있다. 불탁의 하대는 고려시대 대좌에서 볼 수 있는 금강저를 문 귀면과 금줄을 문 귀면



도 46 雲門寺 觀音殿 佛卓



도 46-1 仙巖寺 大雄殿 “海”, “水”文



도 47 環城寺 佛卓 鬼面文 左·右

이 표현되어 있는데, 귀면이 물고 있는 두 지물은 모두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상징물로, 좌측 두 마리의 귀면이 함께 물고 있는 원새끼는 민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원새끼에 고추를 내건 금줄을 상징한 것이다^{도47}. 이처럼 불탁의 문지기인 귀면으로 하여금 민간신앙의 지물을 물게 한 것은 조선 후기 민간신앙의 불교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로, 불탁의 문양이 단순한 도안이 아닌 시대상을 반영한 함축적인 도상임을 엿볼 수 있다.

또 민간신앙의 불교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상으로 운흥사 불탁의 산신도상이 있다.

³⁶天井을藻井이라 함은 한나라의 풍습으로, 『風俗通儀』에 “殿作天井 井者 東井之像也 藻水中之物 皆取以壓火災也”라고 하였으며, 『文選』, 張衡 西京賦에 “蓮華을 거꾸로 조정에 드리우니, 붉은 꽃봉우리가 꽃잎에 싸여 있다.” 또 『風俗通儀』에 “殿堂은 東井을 본떠서 연꽃과 마름의 형상을 조각하였다. 마름은 물속의 물건이니 화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여 불전의 천정에 대한 소재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閻長城·曉鵬, 『中國傳統建築入門』, 『丹青文庫』10(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76), p.25 참고.



도 48 固城 雲興寺
大雄殿 山神文

이 도상은 19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불화의 산신도와 흡사한 것으로, 소나무를 배경으로 산신과 호랑이, 그리고 차를 달이는 동자, 산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산신도를 입체적으로 투각하고 있어 불탁의 장엄문양이 민간신앙을 수용하여 도상화하였음을 보여준다⁴⁸.

이처럼 불탁 문양은 단순히 도안된 길상문이 아닌 불전을 불국토로 미화하려는 수미산의 관념적인 도상을 배경으로 仙人·動物·植物·傳說에 이르기까지 假託되어진 부처님 전생의 모습을 조각함으로써 善惡과 因果의 진리를 알려주는 일종의 說法 대체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적 회화 소재 속에서 몸짓과 동작, 화면의 연속적인 전개에 의해 극적인 說話的 構成'을 연출하는데, 本生譚의 설화적 전개와 그 도상은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吉祥·辟邪·消災로 상징되는 민간의 신앙적 소재와도 결합됨으로써 불탁의 문양이 보다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후기 불탁은 17세기 불전의 장식화 경향에 따른 독특한 장엄과 구조양상을 지닌 시대상을 반영한 佛殿莊嚴具임을 알 수 있다.

명칭은 명문을 통해 '卓子'라는 용어가 발굴되어, 불가의 탁자라는 뜻으로 '佛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도상은 초기 수미산을 형상화한 상광하협의 도상이 佛座의 의미로 정착되어 조선 후기에 장방형의 불탁에 전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불탁의 형식은 그 기능과 쓰임에 따라 초기 불좌를 상징하는 고식형 불탁에서 17세기

중반 천관의 발생과 표면이 장엄된 일반형 불탁으로 정착되었으며, 구조와 용도에 따라 변형과 가리개형, 또는 특수형 불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양은 초기 金剛杵·供養花 등 佛像守護와 供養을 위한 단순한 기능적 문양에서 후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함축적인 도상이 불탁의 표면을 장엄하게 된다. 문양의 주체는 부처전생의 동식물로 일부의 도상은 불교적 소재 속에 몸짓과 동작, 화면의 연속적인 전개를 통해 극적인 '說話的 構成'을 연출하며, 本生譚을 중심으로 허구의 시작과 끝이 불탁의 메시지를 담은 독특한 도상으로 변안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도상은 인간과 선인의 모습보다 석가전생의 모습 중 민간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17세기 전란 이후 불자가 바라는 來世의 輪廻觀과 祈福信仰을 함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불전이 極樂淨土로 美化되는 장식화 경향과 함께 불탁 역시 禮佛과 供養을 위한 기능적인 요구에서 민간신앙의 바람까지 포용한 불교적 이상향을 불탁 전면에 도상화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불탁은 초기 수미산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須彌壇'이라는 불전 내 불상 봉안부에서, 供養과 莊嚴을 상징하는 기능적 구조물로 점차 변용되어 갔으며, 의식집행의 실행처로서 불교대중화에 따른 입체적인 경전으로 그 역할을 대변하였다.

또 불상을 장엄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佛殿莊嚴法을 통해, 불전의 중심에서 불탁을 장엄하였으며, 그 결과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장엄불탁을 창출하게 되었다.

* 주제어(key words) — 佛卓(Buddhist Altar), 須彌壇(Sumeru Altar), 上廣下狹(Narrow at the Bottom and Broad on the Top), 朝鮮 後期(Late Joseon), 佛殿 莊嚴(Decoration of the Buddhist Hall), 本生譚(Jat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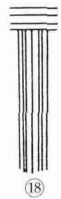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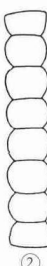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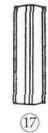

삼도 4 불탁 내 안상 문양 형식분류도

| 時期 | 三國時代 | 朝鮮時代 |
|------------|------|------|
| 안상 장엄 | | |
| 안상 내 장엄 | | |
| 식조물 | | |
| 안상 장엄 | | |
| 안상 내 장엄 | | |
| 식조물 | | |
| 안상 장엄 | | |
| 안상 내 장엄 | | |
| 식조물 | | |
| 안상 장엄 | | |
| 식조물 | | |

불탁 내 안상문양 형식분류도

| | 時期 | 三國時代 | 朝蓋神時代 |
|-----------------|---------|---|-------|
| 臺形式 | 직선형 | ① ② ③ | ④ |
| | 동근모 | ⑤ | ⑥ |
| | 지대목 | ⑦ | |
| 불탁 내 하대장엄 형식분류도 | 중첩형 | ⑧ ⑨ ⑩ | |
| | 운형 |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초가형 |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죽대 내 장엄 | ㊿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삼도 5 불탁 내 하대 장엄 형식분류도

| 불탁 내 중대 동자목 형식분류도 | | | | | | | |
|-------------------|---|---|---|---|--|--|---|
| | 연주형 | | | 숫을동자형 | 동자형 | 특수형 | |
| | I形式 | II形式 | III形式 | | | 조롱형 | 죽절형 |
| 高麗時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도 6 불탁 내 중대 동자목 형식분류도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재 '須彌壇'이나 '佛壇'으로 불려지고 있는 조선시대 木造 卓자에 관해 고찰한 것으로, 조선 후기 불탁 명문을 통해 밝혀진 '卓子'라는 용어를 통해 일반탁자와 구별하기 위해 '佛卓'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조선 후기 佛卓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봉안하는 기능뿐 아니라 佛殿을 장엄하며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중요한 佛殿莊嚴具로 알려져 있다. 불탁이란 통례적으로 불려왔던 '須彌壇'을 지칭하는 것으로, 불상을 모시는 받침을 수미단이라 부르는 것은 석가모니가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곳이 수미산 정상이고, 그 모습 역시 수미산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불탁은 고대 불전 내부의 壇에서 佛座에 이르기까지 불상을 받치는 臺로써 알려져 왔으나,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불탁은 禮佛과 儀禮를 위한 기능적인 '卓子'로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구조와 장엄양상을 가진다.

특히 고대에는 佛像奉安部로서 1차적 기능을 하였지만, 17세기 전란 이후 불교대중화에 따른 불교의식의 확대와 의례장소의 공간이동으로, 예불공간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불전 내 불탁의 위치와 장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불탁은 불교의식의 발달, 營建 주체자의 변화, 佛身의 재료 변화와 함께 '佛座'라는 초기의 단순기능에서 供養과 儀式, 그리고 莊嚴을 집행하는 陳設壇이라는 기능적 구조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戰亂 이후 천도를 위한 齋 儀式的 유행과, 儒敎의 孝思想에 기반을 둔 祖上崇拜, 그리고 基層民의 低邊에 내재한 民間信仰까지 수용하였던 불교대중화의 필연적 결과였다. 이는 17세기 佛殿을 理想郷으로 바라는 민중들의 심리에 부응한 불전 장식화 경향의 반향으로, 특히 조선 후기 불탁에는 匠人들의 미적 취향과 의식, 그리고 시대적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다.

佛卓의 構造는 上臺·中臺·下臺의 3단을 기본으로, 상부 가리개인 寶卓과 寶壇·홍살·補卓 등 여러 가지 보조물로 구성된다. 이것은 불전 내 장엄체계에 따른 건축요소와도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조선시대 불탁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형식분류 결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탁의 형식은 3단의 외형적 구조에 따라 古式形·一般形·特殊形으로 분류되며, 그 기능과 쓰임에 따라 초기 불좌를 상징하는 고식형에서 17세기 중반 천관의 발생과 표면이 장엄된 일반형 불탁으로 정형화된다. 특히 조선 후기 불탁은 佛殿 내 三段分壇法에 따른 上壇으로서 불상 봉

안 외에 공양과 장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용하는 탁자로 다변하였으며, 불전 장식화 경향에 따라 중대를 화려하게 장엄하게 된다.

둘째, 조선 후기 불탁의 위치와 규모는 불전이라는 공간적 입지 속에서 불상의 수, 의식의 확대와 연관성을 가지며, 역으로 의식을 위한 좌석배치와 공간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탁은 불전 내 高柱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며, 17세기 이후 예불의 편리성을 위해 불탁 전면의 확대와 함께 불탁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불탁은 위치에 따라 中心形·正置法·移住法·側坐法·後置法의 5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며, 17세기 이후 3×3칸의 중형 불전을 중심으로 이주법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밖에 불탁의 세로와 가로 비례는 17세기 이전 평균 1:1.56에서 17세기 중반 1:2.78, 후반 1:3.02로 불상 수의 증가에 따른 불탁의 가로 비례가 증가하고, 불탁의 공간 점유율 역시 17세기 이전 7%에서 17세기 중반 11%, 후반 16%로 꾸준히 증가하여, 조선 후기 불탁이 불상을 봉안하는 단에서 헌공구·장엄구 등이 신설되는 공양대의 기능으로 多變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 조선시대 불탁의 장엄과 문양은 中龕를 중심으로 하대의 족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며, 지역적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문양은 초기 金剛杵·供養花 등 佛像守護와 供養을 위한 단순한 기능적 문양에서 후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함축적인 도상이 불탁의 표면을 장엄하게 된다. 문양의 주체는 부처전생의 동식물로 일부의 도상은 불교적 소재 속에 몸짓과 동작, 화면의 연속적인 전개를 통해 극적인 '說話的 構成'을 연출하며, 本生譚을 중심으로 허구의 시작과 끝이 불탁의 메시지를 담은 독특한 도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도상은 인간과 선인의 모습보다 석가 전생의 모습 중 민간인들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17세기 전란 이후 불자가 바라는 來世의 輪廻觀과 祈福信仰을 함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불전이 極樂淨土로 美化되는 장식화 경향과 함께 불탁 역시 禮佛과 供養을 위한 기능적인 요구에서 민간신앙의 바람까지 포용한 불교적 이상향을 불탁 전면의 도상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 후기 불탁은 초기 수미산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須彌壇'이라는 불상 봉안부에서, 供養과 莊嚴을 상징하는 기능적 구조물로 점차 변용되었으며, 의식집행의 실행처로서 불교대중화에 따른 입체적인 경전으로 그 역할을 대변하였다. 또 불상을 장엄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불전 장엄법을 통해, 불전의 중심에서 불탁을 장엄하였으며, 그 결과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장엄불탁을 창출하게 되었다.

ABSTRACT

The Buddhist Altar of the Late Joseon Period

Her Sang-ho

This paper examines wooden altars of the Joseon period, which were commonly called "Sumeru Altar" and had a unique structure and decoration.

The Buddhist altar developed out of a pedestal or an altar designed to install a Buddha image. It shows aspect to combine decoration with memorial service according to popularization of Buddhism, development of various rituals, and material diversification of Buddha images. The simple function to enshrine Buddha images adds to element of the ritual altar. This tendency resulted from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which was generated by the emergence of a ritual ceremony for the dead and the incorporation of confucian ideas and the folk beliefs. The structure of the decorated Buddhist table exhibits periodic changes.

The Buddhist altar is composed of upper pedestal, middle pedestal, lower pedestal, and subsidiary elements like bar. These elements have a close relation with decorative elements.

The Buddhist altars of the Joseon period have several formal characteristics.

First, they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classical type, (2) general type, and (3) special type. The Buddhist altar originally derived from the earthen altar and pedestal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fter the original form, hall-shaped and pedestal-shaped altars appeared. The Buddhist altars of Joseon period have a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at

combined various elements. In addition, this type is taken root as a general type of square-shaped. This fact is proved by the inscription of the 17th century. The general type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y the middle pedestal.

Second, the size of the Buddhist altar are affected by the number of images to be installed and rituals to be performed. The scale of Buddhist hall is decided by the high pillar forming the worship space, after the 17th century the Buddhist altar lies in the rear of the hall for the convenience of worship and the expansion of the central space. In the 18th century, the size of the Buddhist altar steadily grows bigger due to the functional expansion for the ritual ceremony and the generality of the main platform painting. Also it took the shape of a rectangle due to the increase of images.

Third, the decoration of the Buddhist altar reflect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 The patterns of the middle pedestal seem to show all things in nature around Buddha. These patterns are to form the appearance of Mt. Sumeru. Some of the patterns seem to show the narrative composition. The narrative composi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Buddhist literature that became popular at that time, and these patterns seem to describe stories of the Buddha's former births. This composition is to illustrate the contents of the sutra.